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土) 本紙朝夕刊十面

英國案基礎는依然 差等比率主義!

永野全權、建艦自主宣言案을痛烈히批判

今年最終의軍縮第一委員會

【倫敦二十日聯合特派員發】第一委員會는 二十日午後三時二十分(日本時間廿一日午前零時廿分)클라렌스하우스四層 會議室에서몬셀輔司會下에 開會되엿다 永野永井兩全權은 岩下主席隨員外今回에는特히 稻垣、阿部兩大佐를帶同하고 定刻에 會議場에 나타낫다 開會와 同時에 議長몬셀卿은 永野全權을 指名하매永野全權은 滿場緊張裡에 準備하엿든 草稿를 基礎로 左와如히 英國案의徹底的批判을 試하엿다 永野全權演說要旨는 左와如하다

一、英國代表部에서 提案한 建艦宣言案은 各國政府의現有兵力을 基礎로한것이다 그結果에 잇서서는 華府、倫敦兩海軍條約을 그대로 延長하는것이될것이므로 軍縮의目的이 達成되지안흘뿐더러 도리혀軍備擴張을 誘致하게될것이다 여기서 徹底的軍縮을基調로하는 日本의主張과 根本的으로 相容되지안는다

一、英國案은 建艦計畫의 決定에際하야 各國의 現有勢力을 算定의 基礎로할것인으로 海軍勢力의 均等을 主張하는日本政府의 立場과는 全然 背馳되는것이다

一、假令 英米兩國이 讓步하야 今後 六個年間에잇서서 日英米三國의 建艦量을 大略同一히 하더라도 出發點이 一九三六年末現在의 三國海軍力인以上 日英米三國間에 現存하는五、五、三의 差等比率이 이것은 依然存在하게될것이다 이것은 現狀維持打破를 使命으로하는 日本으로서는 到底히 贊成할수업다

一、英國의提案은 各國의建艦自主原則을 名目으로 한것인바 英國側으로서는 前文에 잇서서 『各國政府가 自主的으로 宣言할建艦計畫의限度는 決코 國家的地位를 損傷하지안는다』고 明示하엿다고하나 英國側이明示하는바에依하면 建艦計畫의決定과變更에 當하여는 各國은 他國政府에그趣旨를 一一히 通告하지안흐면 안된다고하므로 建艦自主는 全然有名無實이다

一、英國案의根底가되는 兵力差等主義는 所謂脆弱性의 理論을 出發點으로하엿슴이므로 現代的艦隊가 그移動性을 原則으로 主力의發展에重點을 둔 今日 英國의提案은 策戰上 全然相反되는것이다 따라 日本側이 兵力均等原則이 確立되면 各國의 事情에應하야 適宜調整을 施할 意思가잇다 하야 以上의前提에서서 日本이 華府、倫敦兩條約에 잇서서와가티 兵力의差等을 認定하는것과가티 諒解한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重大한 誤解이다 要컨대日本은 結局에잇서 그主張하는 共通最大限原則의 適用에 큰調整을加할 必要가 업다고 確信한다

一、日本政府는 各國海軍力의共通最大限을 設定하야 軍備均等의原則을確立하고 攻擊兵力의 全廢乃至 徹底的縮減에依하야 不脅威 不侵略의 鐵則을 確立하고 各國軍事費의負擔을 輕減하기를 切望하고잇다 世界平和를招來함에는 軍備縮少外에는 他途가 업다는것을 우리는 確信한다 要컨대 所謂我等이 第一에軍縮目的을 達成하지못하고 第二에兵力均等의 原則에背馳되는提案에는 贊成할수업다 會議는應當日本提案의 共通最大限設定案 討議로歸할것이라고信한다

永野全權의 演說은 英譯과佛譯을 加하야 約一時間에亘하엿다 다음에 二、三代表로 부터質問이잇고 第一委員會는 午後四時五十四分(日本時間二十一日午前一時五十四分) 散會하엿다 이것으로서 크리스마스 休會에入하게되엿다

諸原則에關하야 何等의決定不得

會議事務局서콤뮤니케發表

次回는一月六日再開

【倫敦二十日發電通】軍縮會議休會前 最終의 第一委員會散會後 會議事務局은 第一期會議經過를 槪述한 콤뮤니케를 公表하엿다 그全文은 左와如하다

海軍軍縮會議는 本會議一回와 首席代表會議一回以外에 클라렌스하우스에서 第一委員會七回의 會合을行하엿다 右諸會合은 가장友好的雰圍氣裡에서 行하엿고 現在까지는 海軍軍備의 量的制限을 規定할 組織에關한問題를 考慮하여왓다 右를 目的으로하는 提案으로 現在까지 檢討되는것은

가、軍備의 共通最大限을 設定하려하는 日本의 提案

나、將來 若干年間에 亘한 建艦計畫에 對하야 一方的自主的宣言을 行한다는 手段에 依하야 海軍軍備를 制限하려는 英國의 計畫

等 두가지다 量的側面에 잇서 何等協定의 基礎가 될수잇는가 업는가를 明確케하기 爲하야 此等 兩案은 모든 方面에서 至大한 注意를 가지고 檢討하고잇다 그리고 會議의 當面한 諸問題로 드러갈 最善의 方法은 諸國이 合意할 可能性의 存否를 研究決定하려는 目的下에 提出하는 모든 可能한 解決案을 豫備的으로 通告하는데잇다는것이 認定되엿다 그러므로 討議에 잇서서는 何等 形式의 量的制限이 極히 重大한 價値가 잇다는 見解가 一般的 感情으로 表示되엿스나 그러나 檢討된 諸方式의 基調인 諸原則에 關하여는 아직 何等의 決定에도 到達되지못하엿다 委員會는 來一月六日午後三時十五分부터再開

天皇陛下 大宮御所行幸

【東京電話聯合】天皇陛下께압서는 二十一日午後一時 四十五分 略式自動車鹵簿로 宮城御出門 大宮御所에 行幸하시와 皇太后陛下께御對面 歲末의 御會釋을交하시고 暫時 御歡談 午後四時 大宮御所御出門 宮城에 還幸하압시엿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門戶開放主義와 日米의海軍競爭 (卅二)

雲崗生

여기서 우리는 米國이라는 나라는 理論上、相反하는 두主義를國策으로 가지고 잇는 나라라고하는 點을 한번 考察해 볼 必要가 잇다。두主義라는것은『몬로主義』와 極東門戶開放主義를 指稱하는것이며、이 두主義는 觀念上、서로 矛盾되는 主義다。

몬로主義는 此를 簡單히 말하면

一、歐洲諸國은 米大陸(南北亞米利加及中央亞米利加)의 어느地方에서도 植民을 함을 許치아니한다。又는 米大陸은 歐洲諸國의 植民地로 認定될 地域이 아니다。

二、歐洲諸國이 米大陸의 諸國에 對하야 干涉을 試하는것은 米國의 安寧幸福을 害하는 者로 認하고 此에 反對한다。

三、그대신 米國은 歐洲諸國의 事件에 對하야는 干涉지아니한다。

를 그內容으로 한것인데、이것은 一八二三年十二月二日、當時의 大統領몬로가 議會에 送하는敎書로서 正式으로 宣言한것이다。그後一百十餘年間을두고、米國은 꾸준히 이主義를 직혀 왓다。다만 米國이先般、歐洲大戰時에 獨逸에對하야 宣戰하고、參戰하엿섯기때문으로 몬로主義의 一部分인 對歐洲不干涉主義는 暫間、깨여젓섯다고 볼수가 잇는것이나、그러나 몬로主義의 重要한 部分은 歐洲에對한 不干涉에 잇지아니하고、米大陸에 對한 歐洲諸國의 干涉을 防止하는데 잇는것이니까、世界大戰時에 歐洲諸國의 싸움에 휩쓸녀 드러간 一事로써 直히 몬로主義의 破壞로 볼수는 업는것이다。

何如間、米國이 몬로主義를 提唱하게 된 心理的動機를 考察해 본다면 南北及中央亞米利加의 어느地方을 勿論하고、거기 歐洲諸國의 勢力이 뻐치는 날이면 이것은 歐洲諸强國을 그地域으로 옴기어 오는것과 가튼 結果를 生하는故로 畢竟은 米國自體가 歐洲列强의 틈마리에 끼우게 될것이다。그러면 結局、脅威를 바들수박게 업다。이러케 생각해 보면 歐洲諸國이 米大陸에 對하야 새로 植民地를 두거나 그他의 方法으로 干涉을 試하는것은 米國의 安寧幸福을 害하는者로 認하고 反對한다는 데는 相當한 理由가 잇는것을 알수가 잇다。

그러나 또한번 이것을 다른 方面으로 생각하야

『歐洲諸國은 米大陸에 干涉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은、即、

『米大陸以外의 諸國은 米大陸에 干涉해서는 안된다。』

를 意味하는것임은 勿論이다。몬로主義를 提唱하든 百十餘年前當時로 말하면 米大陸에 干涉할 힘을 가진 나라들이 歐洲諸國박게 업섯기에 『歐洲諸國은 米大陸에對하야 干涉지말라。』는 意味로 表示된것이지、그때에 萬若、强國日本이 잇섯드라면 『歐洲及東洋諸國은 米大陸에 干涉말라。』라고 햇슬것이다。이러케생각하면 米國의 所謂 몬로主義는 米大陸의 門戶閉鎖主義요、機會不均等主義다。

그러고본즉 米國이라는 나라는 米大陸自體에 對해서는 門戶閉鎖主義、機會不均等主義를 쓰면서、東洋에 對해서는 門戶開放主義、機會均等主義를 쓰는 나라다。此를 換言하면 米國은

一、『우리나라가 位置한 米大陸에 너희들이 드러와서는 안된다。』하야 門戶를 굿게 閉鎖해 노코서

二、東洋에 對하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희들이 잇는 땅에 마음대로 가도록 門戶를 開放해 노하라。』

라고 하는 나라이다。

그러고 본즉 此所謂 네것은 내것이지마는 내것은 다만 내것이라는 俗諺 그대로를 表現한것으로서 米國以外의 列强、特히 日本의 立場으로보면 甚히 괴롭히는 일이다。

그러기때문으로 日本은 米國에 對하야

『너희가 萬若、米大陸에 잇서서 亞米利加몬로主義를 提唱할 資格이 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와가튼 實力을 가지고、亞細亞大陸에 잇서서東洋몬로主義를 主張할 資格을 가젓다。』

라고하야 目下 東洋몬로主義를 事實로 提唱하고잇는것이다。昨年四月에 잇서서의 有名한 天羽聲明은 歐米諸國、特히 米國을 相對로 한 東洋몬로主義의 提唱으로 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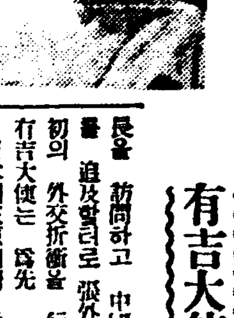
그러고 日本의 東洋몬로主義 又는 亞細亞몬로主義는 적어도 政治的意味에 잇서서는 歐米諸國에對하야 極東의 事件에 干涉지 말라는것을 要求하는것이다。去番、中國의 幣制改革에 際하야 日本이 中國의 對英借款에 反對한것도 이때문이다。即、東洋에 對한 歐米諸國의 干涉의 拒否다。

그러고、米國의 極東門戶開放主義와 日本의 東洋몬로主義와는 正面으로、衝突할수박게 업다。前者는 東洋門戶를 開放시키고야 말겟다는 主義요、後者는 그것을 어디까지든지 閉鎖하고야 말겟다는것이다。

그러고 米國이 極東門戶開放主義를 擁護하기爲하야 攻勢海軍主義로 간다면 日本은 또한 그것을 막을만한 海軍을 整備할수박게 업는것이다。(繼續)

排日取締에關해 嚴重한注意喚起

有吉大使張外交部長과會見



【南京廿日發電通】二十日蔣介石氏와의 會見에잇서서 原則交涉에 基하야 다시 그具體的折衝에 드러갈터로 有吉大使는 二十日午後五時半 外交部에 張群外交部長을 訪問하고 中國側의 誠意를 追及할터로 張外交部長과 最初의 外交折衝을 行하엿다 即 有吉大使는 爲先 日本의三原則에 對하야 中國側에如何한 具體案이잇는가 質問한데 對하야 張部長은 이問題는 相互折衝에 依하야 決定할것으로 今後相互研究를 거듭하여가기를 바란다 特히 北中에도 重大關係가잇슴으로 北中自體의推移에 關聯하야考究할 必要가잇다 고 北中問題에 言及하엿슴으로 有吉大使는 右는 中國의 純然한 內政問題로 討議할것이못되나 國民政府는 北中에對하야 如何한 誠意를 가지고잇는가 反問하고 다시 冀察政務委員會의 幣制改革 除外使法等에 關하야 國民政府의 方針을 質問하고 事態의 重大性을 指摘하야 그善處를 要望하엿다 이에對하야 張部長은 蔣介石氏와 同樣目下研究中이라는 言明을 하엿다 右北中問題의 根本解決에는 반드시 日本의 好意的支援을엇기바란다 고 懇請하엿슴 有吉大使로 부터 日中諸懸案의 解決促進을 圖하기바란다는 旨를 表示한데對하야 張部長도 原則的으로 同意를 表하는同時에 全面的으로 日本의對中援助 特히 幣制改革의 善後策 不平等條約撤廢에對한 好意的考慮를 求하엿슴으로 有吉大使는 幣制改革은 中國이 歐米依存主義에 依하야 日本을無視하고 斷行한것이므로 日本으로서는 最初부터 反對한다 그리고 不平等條約撤廢는 國內組織의 完備와 國際信用의 確立이先決條件으로 中國이 右目的을達成하기를 바라면 모름직이 從來와如히 國際的不誠意를 淸算하고 國內制度를充備하여서 近代的 國家인 資格을 具備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라고 强調하고 水兵射殺事件、日本人商店襲擊事件等의 現地理에對하야 中國當局의 考慮를促하고 一般的排日取締 學生運動의禁止에對하야 嚴重注意를 喚起하엿다 이에對하야 張部長은 國民政府의 北中方針을 說明하고 日本側의諒解를 求하고 會見을 終了하엿다 (사진은 有吉大使)

和協案失敗轉機로 英伊關係再次惡化

英政府地中海沿岸諸國의協力을要請

一戰은不可避할形勢

【倫敦二十日發聯合】信憑할만한側의 消息에依하면 英國政府는 英佛和協失敗後의 歐洲政局에 甚大한 疑慮를 抱懷하고 地中海諸國 佛國、西班牙、土耳其、希臘及유고슬라비아 諸國政府에 對하야 軍事的 協力問題에 關하야 銳意折衝中이라고 解釋된다 卽 英國政府는 和協試案이 瓦解된 今日 聯盟의 對伊制裁推移로는 地中海에서 伊太利와의間에 一戰을 交하리라는것은 거이 不可避하리라는 見解下에 百方으로 集團的行動確保方策을 進捗하고잇다 佛國政府에서는 그海軍全勢力의 動員에 적어도 二週間을必要한다는 回答을 보냇다 係上英國은 자못困難한 地位에 잇다고 觀測된다

【倫敦廿日發電通】英佛和協案의 失敗를轉機로하야 英國의對伊關係는 再次惡化하고 地中海의情勢도 다시激化될것이念慮됨으로 英國政府로서는 발서萬一의境遇에 備키爲하야 爲先佛國에 對하야英國이 聯盟規約 第十六條第三項(制裁)에 直面할境遇에 萬一伊太利로부터 攻擊을 受할과如한境遇가 잇는時는 英國海軍에 協力할 用意가잇는가 엇는가 軍事的協力의 意向을 質問한바잇고 다음 西班牙、土耳其、希臘、유고슬라비아、埃及도 同樣主旨下에 對英協力의 有無에 關하야 正式照會를 發하얏다고 傳하는바 이미十九日下院에서 첸벌레인藏相은 이事實을 明白히하는 同時에 佛國을 爲始하야 以上의 地中海諸國에서 非公式으로 對英協力의 誓約을 得한旨를 發表하얏는데 要컨대英國政府로서는 이等諸國에서 集團的協力의 正式誓約잇슴을 기다려 斷然對伊制裁의 積極的 行動에 移할것으로보이는바 地中海上의 情勢는 이에不安을 加하게되엿다

休會콤뮤니케內容 嚴重抗議

◇日本全權團에서

【倫敦二十日發聯合】第一委員會散會하기前에흠만事務總長으로부터 休會콤뮤니케 草案을 各國代表에게 內示하엿는데 右草案末尾에『一月六日再開會議를 기다려 質的制限案을 討議하야 軍備縮小의 目的達成을 期한다는 字句가잇다 日本全權團에서는 量的制限을 伴하지안는質的制限에 反對할뿐더러 量的 制限決定以前에 質的 討伐을 開始하는것도反對하고 잇슴으로 永井全權은 嚴重抗議하엿다 委員會散會後 岩下主席專門委員은 滿山通譯과함께 흠만事務總長 크레기參事官 米國專門委員等과 約三十分間에亘하야 協議를遂하고 『아직上程되지못한 將來問題를 콤뮤니케에 挿入하는것은 콤뮤니케의 性質에反한다』는旨를 强調한바 事務總長도 마츰내問題의 字句를 撤回하게되엿다 英米兩國政府에서는 量的 制限案에關하야 誠意가업고 結局 質的制限案만으로라도 日本海軍今後의 建艦計畫을 拘束하려는것인바 今回의 콤뮤니케와如한것은 右作戰을 暴露한데不外하는것이다

英國案에對한 列國의態度

日本以外는同意

【倫敦廿一日發同盟特派員發】英國軍縮案의 討議는 來年으로 延期되엿는데 今日까지의 討議에 依하야 列國의 態度는 大體로 判明되엿다 日本을 除한米、佛、伊는 모도 英案에對하야 主義上異議가 업스므로 日本의 主張貫徹은 거이 絶望視되게되엿다 即 英案에對한 列國의 態度는 左와如하다

▲日本 事實上 比率適用을 暗默裡에 是認하고 또 現有兵力縮限에 對하야 言及하지못한 英案은 軍備均等과 大規模의 軍縮과를 希望하는 日本의 根本主張과 全然相容되지안는다

▲米國 建艦計畫을 一方的으로 宣言하지안코 協定에依하야 束縛하는것이라는等 若干의 異見은 잇스나 現行比率을 維持하는以上 主義로 反對치안코 討議의 基礎로할 意思가 잇다

▲佛伊兩國 建艦協定期間 六個年은 佛國으로서는 對獨關係上 伊太利로서는 財政上 其他의 關係로 모도 너무 길다고 認定하고 二、三年以內로 하기를 바란다 其他 實際適用에 對하야는 希望도 잇스나 量的制限方式發見이 困難한 今日大體로 英案과 如한것을 討議의 基礎로 하는데 異議가 업다

幣制危機打開次 對英借款再提議?

孔宋兩氏政府銀行首腦者召集

通貨問題로重要協議

【上海廿日發電通】二十日朝孔祥熙氏 私邸에서 協議한 孔、宋兩氏는 正午지나 交通銀行樓上에 레이드로스氏의 來訪을 求하야 中央、中國、交通三政府銀行首腦者를 召集하고 通貨問題에 關한 重要會議를 開催하엿는데 夕刻에도 아직 散會치안코 愼重協議를 거듭하고잇다 會議內容은 判明되지아니하엿스나 蔣介石氏의 意向을 携來한 孔祥熙氏와 英本國의意向을 代表한레이드로스氏가 中心이되여 米國의銀買上中止에依한 中國幣制의再危機를 如何히 打開할것인가를議題의 中心으로한 模樣으로 結局 銀價가 不安한 此際 過激한 幣制再改革을 急히하는것은 不利하고 또 一個月半 前에 改革한以上 面目上으로라도 今日에 再改革하기 不可能하므로 現在의 爲替統制를 될수잇는대로 維持하는데 一致된模樣인데 그때문에는 現在의 不安의 根底가 되여잇는 在外資金의 涸渴을 英國의 援助에依하야 補充하고 다시 不足되면 새로對英借款을 提議하려는 模樣이다 그리고 이러한方針에서 中央銀行은 二十一日出帆코레시덴트후-버號로 現銀一千萬弗을 米國에 輸送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는在外資金의 補充에 充當하리라고 觀測된다

上海의學生運動 더욱尖銳化

【上海十九日發電通】上海의 學生運動은 藍衣社其他秘密機關에 加入한 敎授들의 使嗾으로 全혀 尖銳化하야 今明日中에 橫斷的各大學聯合會를 組織하고 官憲彈壓에 對抗하야 大大的學生運動을 이르키기로 決定하엿다

八面鋒

◇『自己의取한政策은 俯仰天地하야 부끄럽지안타』는것이 『호어』氏의 退場하는 『세리후』。

◇弱肉强食하는것이 天도地도承認할일이라도 英國政界가 不承認하니 怪常한일。

◇典當利子내린뒤로 衣類典執을 拒絶하는일이 만타고。

◇오직해야 옷가지를 잡히리오 여북하야 典當局의 門을 두다리리오。

◇歲色은 將暮하고 人心은 焦燥하고 거리는 쓸쓸하고。

◇밥업고 옷업고 居住업는 사람의事情이 더욱더 딱하다。

◇同情袋、慈善냄비가 거리에出動한은 고마운일이나 그成績如何가問題。

主婦之友 新年號の大評判記事

人妻の危險時代は如何にして切り拔けるべきか?

多情な良人 自己의妻以外의女性에손대이는夫君이잇지나안혼가엇더케하면이런것을改준식힐수잇슬것인가

良人の愛人 사랑하는男便에게愛人이잇는것을알게된妻는엇더케하는것이조흘가?그에對한善處法을親切하게記載하여노엇다

性的の不滿 夫婦和合의最大의障碍=性生活의不調和에잇는것이다。男便되신분도妻되신분도꼭한번一讀하여둘特別記事發表

良人の道樂 男便의享樂에煩悶하시는主婦들을위하야그煩悶이解消되는秘訣을그럿듯이써노흔必讀의好評文

良人の變態 男便의變態的愛慾에苦悶하시는婦人은반드시한번읽으시라。그런분은態度하나으로서病癖을고칠수잇슬것이다。

冷淡な良人 夫君의冷淡에不滿을싸이고게시는主婦을위하야、그善處法을親切하게公開한特別記事이다。

良人の嫉妬 男便의嫉妬에煩悶을밧고잇는主婦는꼭한번읽으시라。그냥두면嫉妬心은漸次로惡化될뿐이다

良人の隱し兒 꼭믿엇든男便에게숨긴애기가이슬때에는妻되신분은엇더케하면조흘가하는處置法을詳細하게公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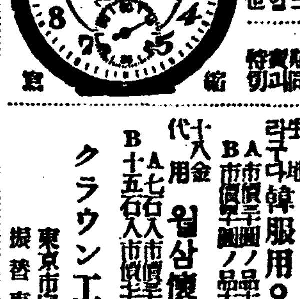
愛し得ぬ良人 이모리마음을다하여도男便을사랑할마음이나지안는婦人께서는무엇보다도이記事를읽어보시라

良人の虐待 男便에게虐待밧으면서눈물로지나시는분은반드시一讀하시여幸福스러운生活을맛볼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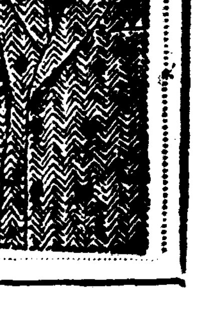
▼『主婦之友』의新年號는『和服裁縫全集』『맛손님대접料理全集』과『東鄕元帥謹書의額面用敎育勅語』의三大特別附錄을압저特價八十錢이다아직사지안흐신분은기회를노치지마시고時急하사시라書店에品切되엿슬時에는、단一部라도、東京神田主婦之友社振替東京一八○番에直接注文하시라

景品附投賣 クローム懷中時計 二百枚限

注意 オーバー一枚買上時마다寫眞特製懷中時計クサリメタル附一個式無代進呈함 前金注文에限홈 郵稅負擔 ◀代引注文은注文可不 代引料一圓五錢也



實價但日12月31日限 特別割引



紳士用 兩前오-바 A市價 B市價 代金 十七圓 十五圓

월상懷中時計

クラウン工業所地方部 東京市向島區東三ノ一六 振替東京 三三五○三

빅타ー 一月新譜

流行歌 相思의恨 金福姬
오고가는한숨 鄭鉉海
映畫主題歌 그리운廣寒樓 金福姬
十杖歌 金福姬
俗謠 철모르는아해들 창망한구름 金玉順
단센쓰 그대도靑春
沈淸傳 水祭 金如蘭
俗謠 느진난봉가 中난봉가 金玉葉 閔亨植
童謠 金貞任

平盤● 一枚金壹圓

◇十二月二十一日부터大公開 大衆料金均一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十五分始映

◇파라마운트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西部 白馬王國 全八卷 監督…헨리하시웨이氏 主演…랜돌프스콧氏

◇獨逸우파社超特作品 大名歸鄕 全十卷 監督…요-마-이氏 主演…구스타프후레히氏 데이스마르노-캐라르氏

마키노푸로덕슌金特作品 時代劇 구제를求하는者 全七卷

次週 湖蝶이날때까지 새벽의欒風 豫告 春風 血과惡魔 朱金昭 いたつら小僧

麻浦桃花洞 桃花劇場 電(龍)二二三

來る廿日特別名畫祭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婦人俱樂部連載 新潮社發行小說 女の友情 全拾五卷 原作 吉屋信子 監督 村田實 志賀曉子 中野英治 伏見直江 江川なほ子 婦人俱樂部百萬の讀者熱狂の問題篇再度諸彥の御希望に依り大公開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超特作 大阪朝日新聞連載 おせん 全拾卷 原作 那枝完二 考證 少府雪岱 監督 石田民三 撮影 三木茂 市川正二郎主演 鈴木澄子 泉春子 松本泰輔 松尾文人 小宮一晃 助演

永樂町 中央館 電本三五

メリヤス 雜貨 俱部商 三永商会 店名記入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京城府三角町百五番地 電話光化門(3)一四六三 振替京城一五八二〇番 大阪市此花區上福島南三丁目四三 仕入部 電話福島一五八八番

高麗人蔘 開城白菜種子

朝鮮開城府東本町 元祖人蔘商会

京城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番

大鐵橋와 地下道로 麻浦와 汝矣島連絡

漢江下流도 大浚渫을할터

總督府에서 立案中

총독부에서는 경성부의 대도시계획실시에 대하야 특히한강(漢江)의치수와 수운(水運)의 편을도모하기위하야 일즉부터 마포(麻浦)부근의 축항을 계획한바도 잇섯는데 최근에 와서는 경성의 인구팽창과 대경성도시계획의 실시에 따라 마포부근의 축항과 교량가설을 구체화하게쯤립안중이라한다

대체의 복안을 듯건대 마포부근 로정리(土亭里)와 현석리(玄石里) 일대의 강안에상당한 규모의 축항을하야 어선은 물론 회물려객을 운반하는일천돈급의 긔선을 정박시킬수 잇는 설비를하야 일단유사시에는 구축함(驅逐艦)이 이축항장에 입항할수잇게 그하류를 준첩(浚渫)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동시에 하중리(賀中里)부근으로부터 여의도(汝矣島)에 철교를 가설할필요가 잇스나 군사상의관장과 또그상류에 축항을하는관계상 선박의 통행에지장이 생기겟슴으로 철교는 가설지안코하중리로부터 「런넬」에 의하야여의도와 련락하게하며 동시에공업지대이며 남쪽관문인 영등포(永登浦)에 련락케한다는것으로 멀지안허 구체화될터이라한다

乘客의 汎濫으로 電車빼쓰、大混雜

配車不圓滑로市民의不便莫甚

二月中에나電車增配

년말관계로 거리에는 사람의 통행이번잡함을따라 시내의 각 교통긔관은 총동원을하고 잇는 중인데 그중에도 대중교통긔관으로 가장중요한 역할을하는전차(電車)와 『빼스』의운전이 뜻대로 원활치못하야 전차는二조면 십분가량이나 기다리게 되는례가 적지안코 『빼스』는 보통오분십분이나 기다려도 만원에만원이되여 탈수업게된다 경성전기 회사전차과(電車課)에서는 현재 전차 일백사십륙대와 『빼스』 팔십일대가 잇는데 잇는대로 차량을 전부동원식히는 중이라하나 그래도 미처배차의 원활을 보이지못하는 관계인지 차량의부족으로 인지 근일시민은교통의 대불편을 늣기고잇다 승객의수효로보면 십이월중에 드러서는 매일평균 연이원(延人員) 십오만명가량의 다수에달하는데 례년 보다는 오분내지 일할 가량의 증가를 보이엇다 한다 회사측에서는 승객이 이가타격증함에따라 방금 독경으로 새전차를 주문하얏스나 그것이 오는 이월이나 되여서 백인승『뽀기형 반강제(半鋼製)전차입곱개가 올터이며 또칠월까지에 역시 백인승다섯대가 올터이라는데 가격은 이십사만원이라하며 그래도 그중간에 또차대의 부족을 늣기므로 전차과에서팔십인승의 전차다섯대를 방금제작하는중에잇서 오는 류월까지에나 가두에 출동할모양이다

이와가티 차대의 부족으로자연차량의 배차(配車)가 시원치못하야 시민의 불평이적지안흔데 대하여 소송(小松)전차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차량의 부족으로 조금 불편한 점도 잇섯습니다만은 이달(십이월)에 드러와서는 그러한일이 업섯습니다 지난번실험)에는 관청과학교의 시간이 한꺼다어서 불편하지만 지금은좀 완화되엿습니다 손님도 만흘것가트나 실상은 무어그다지 만흘것도아닙니다 운운

鴨江에파리(설매)活躍 【新義州】신의주지방 압록강의 결빙도 최근에 아주든든하여저 빙상의통행을 정식으로 허가하여 압록강상의명물 파리의 활약을보게되엿다 (사진은 파리)

高敞中心結社 金明桓豫審에

女子殷淑貞만은釋放

【井邑】전남 고창지방(高敞地方)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사건은 정읍경찰서에서 구개월간의 취조가끗나고 지난십일에 주범김명환(金明桓)외 팔명을 전주지방법원 정읍검사국(全州法院井邑支局)에 넘겻든바 동검사국 행상(行森)검사의 조사를 마치고서 지난 십구일에 은숙정(殷淑貞)양만 석방하고 김명환외 칠명은 이십일 동법원예심계로 넘겻다고한다

生活難으로 三十靑年飮毒

부내팔판동(八判洞)일백륙십사번지 고백원(高百元)(三○)은 이십일일오전한시 수송동(壽松洞)에 잇는 중국료리집보영루(寶英樓)지점에서 양재스물을먹고 자긔집으로 도려가서 고민하는것을 그집사람이 발견하고 곳의전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만은 건지게되엿는데 원인은 생활곤난을 비관한것이다

天道教人日記念 오는이십사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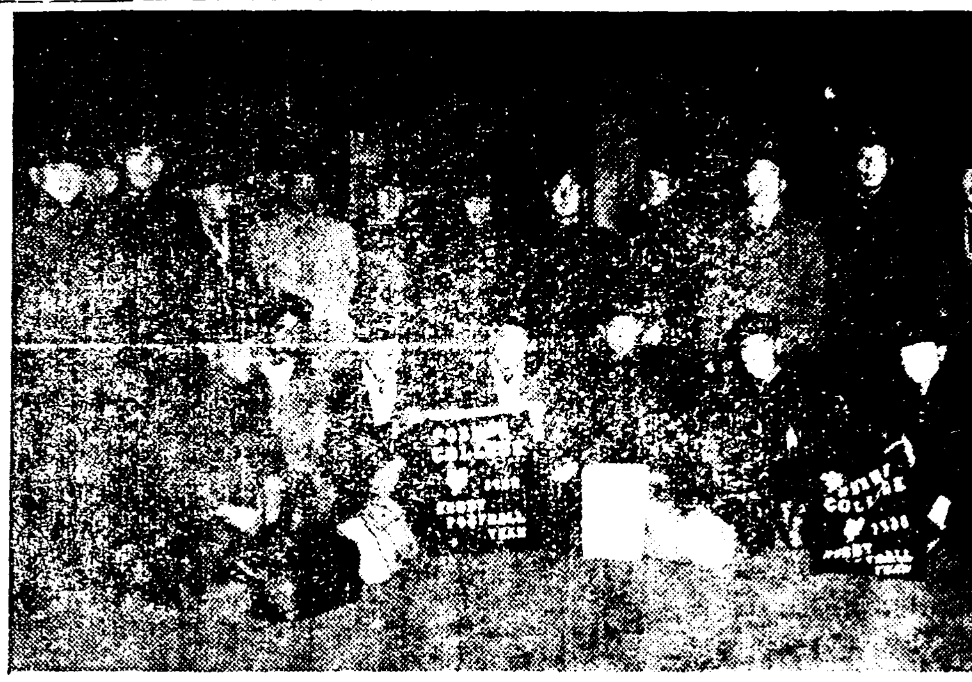
오는 이십사일이 천도교제삼세교조손 의암성사(天道教第三世教祖孫義菴聖師)의 제삼십팔회승통긔렴일임으로 시내경운동에잇는 천도교중앙총리원에서는 동일오전십시 동교당안에서 리군오(李君五)씨집례와 리돈화(李敦化)씨 설교로써 성대한 긔렴식이 거행되리라는데 벌서부터경향각지에서긔렴식에참석키위하야 교도가 속속입성중이라한다

咸南에毒感猖獗 學校도臨時休學

어린이들에게 더맹렬히침범하여

各地마다무섭게流行

【咸興】날이갑작이 치워지며 독감이크게 창궐하야 조금도종식하는비치 업시 더욱맹렬하게 긔세를돕히어 이십일현재로 당국의 조사추정에 의하면 도내에 사만여명이란 놀나운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잇다하며 특히 소학교 아동들이 독감으로 인하여 결석하는수가 극히 만하 함흥소학교(咸興小學校)와 흥남고보교에서는 부득이 오일간림시휴교까지 할형편이라는데 이러케 독감이 대창궐하기는미증유한일이라고 일반의 우려가깁다 더구나 이런독감은 소년소녀에게 더욱심하여 집집마다 아흔들이 자리에눕게되여 크게공황을 이르키고 잇다 병원들도 이때문에 의외로복잡한형편이다



大阪에遠征간 普專럭비部一行

十七歲少年으로 可驚할智能詐欺

帝國商事會社外交員이라詐稱코

各地로轉轉農民相對騙財

가난한 농민들을 속여서 적은 돈으로 큰돈을 돌려쓸수잇다고 칭칭하며 떠도라다니는 앙큼한 소년외교원──자칭 서울에 본부를두엇다는 제국상사주식회사(帝國商事株式會社)외교원 최흥우(崔興雨)(一七)라는 소년은 지난 시월이십팔일 경기도가평군 외서면상천리(加平郡外西面上泉里)사백십륙번지 홍순영(洪淳英)이란 농사꾼의 집에 가서 묵으면서 자기는 제국상사회사원인데 물경기한 이때 가난한 농민들에게 금전을 융통해줄목적으로 제국상사회사 라는것이 이번새로 생겨서 만약 이원돈을 내이면 오십원을 담보업시 꾸여주고 사원을 내이면 그배를 돌려주는 특징이잇다고 그럴듯하게 달래서 그마을 권기선(權命善)등 열아문명으로부터 적지안흔돈을 속여먹고나서 각각 미텁성잇게 증서를 써준후 방울라 그동리에서자최를숨겨바리고말엇다 그리고는 다시근기지방각처로떠도라다니면서 이와꼭가튼수단으로 갓득이나 가난에 울고잇는 수만흔 농민들을 속여먹다가 얼마전에 서울로 도라와 숨겨잇다하여 지금 시내각서에서는 그를 붓잡으려고찻는중이라한다

宣川에도流行

缺席兒童多數

【宣川】일정치못한 긔후로 말미아마 그동안 선천지방(宣川)에는 감모(感冒)가 대류행하야 이때문에 신음하는 사람이 근팔백여명에 달하엿다고하며 각학교에도 결석생이 다수에달한다고 하더니 또근일에 와서는 다시금 천연두(天然痘)가발생하야 이미사망자까지 한명 내여스므로 일반 시민들은 공포중에 싸여잇스며 이에놀낸 당국에서는 이십일부터 선천오사무소에서 이를 예방키위하야 일반 시민에게 종두를 시행한다

極寒에極窮의細民 京城에三萬七千餘

十一月一日現在調査의所謂「까ㅣ드」細民

一年中六八百餘名增加

추이와가티 세색은 지터가는테 두러진 창에 차듸찬 구들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줄리고잇는 가련한 세궁민(細窮民)이 얼마나 되는가 십이월일일현재 경성부내의 『카ㅣ드』놈민이라하야 구제를 밧지 안코는 살수업스리라고 『카ㅣ드』에 등록된것이 동부(東部)에 일천오백륙십일호에 륙천칠백팔십이인이고 북부(北部)에 이천륙백사십일 임마칠천오백구십구인이며 서부(西部)에 일천오백팔십팔호에 륙천팔백이십구인이며 남부(南部)에 일천이호에 사천구백륙십륙인이며 룡산(龍山)에 일천구백사십오호에 팔천이백사십칠인으로 총계팔천팔백사십이호에 삼만칠천사백이십일인바 이를 작년동긔에 비하면 이백팔십칠호에 륙백칠십구인이 늘엇고 지난 구월말 현재에 비하면 약 일천명이 두달동안에 증가하얏다

失貞한中年女 乃子를殺害

다섯살먹은것을눌러죽여

驪州署에서引致保護

경긔도 려주군 개군면 상자포리(驪州郡介軍面上紫浦里) 일백팔십오번지 리용구(李容九)의안해 한씨(韓氏)(三七)는 지난십이일 양평군(楊平郡)하그의 친척의 집에 갓다오는 별안간 정신에 이상이생겨 마츰내 십팔일오후 열한시에는 랭수를한동이떠다가 신령님이 주는 약수라고 집안사람에게모다 한그릇식메이고 그의 아들 윤재(允載)(五)를 이불로더퍼눌러 숨이 막혀죽게하엿슴으로 소관려주경찰서에서는 살인죄로 취조하는 중이나 전연기진상태에 빠저잇슴으로 그의정신이 회복되기를 기다릴뿐이라한다

東京파橫濱間에 大運河開鑿工事

【東京電話聯合】명치십삼년이래 문제가 되여오든 동경 횡빈간(東京橫濱間)의 운하(運河)는이욕고 사천오백만원의 거액을던저서 팔개년간의 계속공사로서 소화 십일년도부터 착공하기로 되여 이 예산이 십구일 동경부회(東京府會)에 제출되엿다 그총연장은 이만이천륙백 미돌이오 폭은 칠백미돌 수심은구미돌로서 일만돈급의 선박이넉넉히 댈갈수잇는 대규모의 것이라한다

그밧게 연장일만이천미돌 폭이 백미돌의 종선항로도 맨들리라고하며 이운하공사에서나온 흙은 동경횡빈경계에 약륙백삼십만평 대매립지(大埋立地)를 맨들고 그우헤 일대공장지대를건설한다는것이다

主人을불러서 嬰兒노코潛跡

이십일밤열시쯤 시내황금정(黃金町)칠정목 오십번지 박용식(朴容植)(三○)의집 문간에『여보시요! 여보시요! 주인좀나와보!』하고 문을두다리며 주인을찻는사람이잇서 장을깨여 인이문을열어보즉 찾는사람은종적을 감추고 의외에도 출생후 불과 한달밧게 안되여보이는옥동자가 보재기에 싸여잇고 그겻헤는『이어린애는 지난 십일월십팔일 오전여덜시부터 젓을 먹지못하고 굶은 불상한어린애니 잘길러주시요…』하고 써여잇는 편지한장이 노혀 잇섯다 또아니한 이선물을 바든 박씨는 즉시 소관본정서에 이사실을 말하엿든바 동서에서는 이애를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에 의탁하야 길르도록 교섭하는한편、버리고간 어린애주인을 엽탐중이라한다

奔馬가小兒轢殺

市外新堂里에慘事

이십일 오후세시 오십분경에시외신당리(新堂里)룡곡고등녀학교(龍谷高女)에서 집육실고나오든 왕십리(往十里)사백이십번지 김토중(金土中)(二○)의 마차말이놀라서 뛰여다라나다가 신당리이백오십번지 아베이르러슬때에거기서 놀고잇든 신당리 이백오십일번지 엄순성(嚴順成)의 셋재아들 익조(翁祚)(一)가 미처피하지못해서 수레뒤바퀴에 깔려서 그당짐에 인사불성이되여잡바젓다 곳부민병원으로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했스나 다시소생이되지못하고 죽엇는데 외상은경해서죽은 원인이 확실하지 못하므로 성대병원에서 해부하리라한다

金剛遊覽萬七千名

금년의 금강산(金剛山)탐승객은 봄이후로 일만칠천구십명이인데 작년에 비하야 이할의 증가를 보엿스는바 단체손님보다도 각명사들의 개인과가족 탐승이만헛다고한다

運動競技

普專럭비部 昨夜、合宿練習地에

來一月三、四、六、八의 四日間大阪에서열리는第十一回全日本高專럭비大會에朝鮮代表로出戰하는 普成專門럭비部一行十八名은監督李鍾院氏引率아래 二十日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同窓들의 盛大한歡送裡에 出征하엿다 一行은二十一日朝에 合宿練習地인 新馬山에이르러 一週日間의 猛練習을마치고 二十九日밤釜山을 떠나戰地大阪에 向할터이라한다

運動界人事

▲柳長春君(올림픽候補陸上選手) 二十日咸南利原郡南面遮湖 自宅에서遭外歸鄕

一齊檢索中에 賭博團檢擧

부내 다섯경찰서에서는 이십일일 새벽 관내일제검색을 단행하야 부랑자 전과자등 약오백명을검속하엿는데 종로경찰서에서는 일제검색중 의외에도 인사동 조선극장근처에서 사긔도바단 련지동(蓮池洞)륙십륙번지 박경래(朴慶來) 김정철(金正喆) 김정식(金正植)외 한명을 검거하야 방금 엄중한 취조를 진행중인데 박경래는 회중에 현금 천원을 가지고 잇섯다한다

伊藤阪二起訴

【大阪電話聯合】소위신동양주의(新東洋主義)를밋기삼아 사긔를한이등판이(伊藤阪二)는이십일오후 대판지방재판소검사국에서 사긔죄로긔소되야 예심에회부되얏다

天氣豫報

大陸의高氣壓은 北中國에잇서 七八○미리를表示하고 漸次로 日本에向하여나저젓는데 琉球東方에는弱한低氣壓이잇다 滿洲朝鮮은맑고 바람은弱하나多少치워젓다 朝鮮海峽은흐리고 太平洋沿海는맑고 日本海沿岸은비가올듯싶다

豫報 今夜와明日은모다 北西風이고 맑엇다흐렷다한다(京城地方、京畿道全區를通하여갓다)

昨日最高	零下	○、七
同 最低	同	五、四
今朝最低	同	八、八
今日正午	同	六、五

同和 止咳露 京城府和泉町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이까리소ー스
イカリソース
日本第一産額 日本第一品質
日本第一信用
日本第一인것

フクシマ セミデイゼル
木炭ガス發生機
最新式小型單衝3.4.5.6.8.10 15馬力型、木炭一貫目로石油二升分의出力이납니다
商工省推獎

小型發動機 陸用・舶用の優良機 故障絶無 廉價
二馬力 一八五圓
三馬力 二一○圓
四馬力 一三五圓
五馬力 一九五圓
ブールハツ 空冷式 小型輕量發動機
精米・製粉・一般農工用 一二、三、四馬力型各種 重量六貫目以上
モンデン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最高甲位入選
耐久堅牢 能力絶大 特許一號機 新型完成特價提供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合資會社 電話土佐堀二三六一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함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臨時로入學許可함 入學者은누구나 一技를배워서獨立的生活의安定을得하라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送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二 公認 東京寫眞學校

時計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保險金受領廣告
我等이 京城府黃金町二丁目月掛保險에 元祖日本動産火災와 契約中이던바 去十七日不幸히罹災하야 左記保險金을 支拂하여줌으로 비로소火災保險의고마운것을알고 또 同會社의 信用이確實하고懇切미덥한것을 感謝하며 玆에謹告하나이다
一金一千五百圓也 京城府仁寺洞五十八番地 趙聖鎬
一金九百五十圓也 京城府仁寺洞五十八番地 黃逸善
一金四百圓也 京府府仁寺洞六十四番地 百球堂運動具店 崔學基

國産 カッピー白粉
카피가루분

潑溂한 美의感激 美的香氣 굉장한感觸
이一品이야말노 당신이 늘憧憬하고잇는 化粧美를 한업시表現식힌 世界的逸品이다
個個의性格에 꼭맛는 標準色七色
大形 小形
良品은빗난다 豐香園製品
東京牛込 田端豐香園

學校와家庭에 新年의太陽갈이 나타난! 오-게-教育레코-드
朝鮮總督府認可 朝鮮語學會推薦 朝鮮音聲學會推薦 朝鮮音樂教育協會推薦 朝鮮音樂家協會推薦
朝鮮總督府編 普通學校朝鮮語讀本卷一ー六
讀法指導 京城女子師範學校 沈宜麟先生
作曲及音樂指導 中央佛教專門學校 朝鮮音樂教育協會 李鍾泰先生
音聲指導 延禧專門學校 朝鮮音聲學會 鄭寅燮先生
吹込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 兒童中 京城女子師範附屬普通學校 兒童中 京城女子師範學校 生徒中
第一回發賣 拾貳枚壹組 特製美麗알범添呈

떳다 떳다、 해가 떳다、 둥근 해다、 밝은 해다、 큰 해다、 고은 해다。

流行歌
正月新譜
아버지는어대로 獨唱 李蘭影
故鄕의꿈 高福壽
달을따라서 李銀波
南國의눈 金海松
三叉悅 재스송 카스보위 이체노리 래니
民謠 지큰 애기화 타령 자 愼淑 吳貞姬
스켓취 사랑市場 林生員 羅品心
伽倻琴 竝唱 독기 郭氏夫人 화상 葬後 成錦花
三國誌 春香傳 高堂 하로가 고上 金素姬
春香傳 再逢春 林芳蔚
俗謠 藥選歌 崔順慶
俗謠 新장그타령 崔貞植 申錦紅
民謠 고무줄수염・汽車 메밀꽃・허잽이 全明姬 宋雨善 鄭慶甫
레코드 唱 아혼아홉 扶餘行 李有善 徐弄鈴
提琴 獨奏 유모레스크 주라우메라이 郭正淳
(十二月二十日 一齊發賣)
오-게-레코-드

가정염색법 (二)

염료의종류와그성질

京城高工校 韓辰範

직접염료로 미명이나 베종류를 물드리랴할때는 물드리는가마솟에 옷감이너머히잠길만한물을붓고 옷감백몸메에대해서 염은비순은

물감	一몸메
소곰	二乃至三몸메
炭酸曹達	一몸메

진하게드릴경우에는

炭酸曹達	二乃至三몸메
물감	二乃至五몸메
소곰	三乃至八몸메

이비례로 분량을달어서 맨처음탄산소다를 솟레너어서 녹인다음에 남비에 녹여논물감을 탄후 소곰을너코 잘저어서 미리물에추겨논 옷감을 너코 천천히 뒤저거리며 삼십분동안에 끌케하고 다시 삼십분쯤 끄린뒤에 짜내어 맑은물에씻서 말립니다

이러케 염색을하고남은 물에는 삼분지일가량의 염료와약품이 남어잇는고로 여기에다 업서진 삼분지이가량을 다시보충하면 미처번과가티 염색을할수 잇습니다

다음에는 직접염료로 비단을 물드리는법인데—깨끗한 비단 백몸메에대해서 염은비순은

물	한말쯤
염료	一몸메이하
硫酸曹達	八몸메
醋酸	一몸메

염시도안코진하지도안흔 중간색을낼때는

물	七八升
染料	一乃至二몸메
硫酸曹達	十몸메
醋酸	二몸메

진한빛으로 물드릴때

물	六七升
染料	三乃至八몸메
硫酸曹達	十五몸메
醋酸	三몸메

이런 비례로 염료와 약품을 준비한다음 가마솟에 물을붓고 류산소다(硫酸曹達)를너허 녹인다음 다른그릇에녹여논 염료와 조산(醋酸)을너코 잘저어서 석근뒤에 비단(물드릴것)을 물에 축여서 물끼가 고루가게 한다음 짜서 가마솟에 너코 서서히 온도를 올리고 고온도로다시 삼십분간 염색하야 맑은물에 씻고 말리는것은 악가와마찬가진데 비단은 염색을 잘못하면 얼룩이가 지기쉬운고로염료와 조산을 세네번에 나누어서 염액(染液)에 가입하여야되며, 조산대신 먹는초(먹는초를사용할때는 조산분량의 오배가량을 너흐십시요)를 사용해도 좃습니다

그다음에는 털옷을염색하는법인데—

털염색법도 대체로 비단과가트나 털의염색은물이 끌치안흐면 잘드려지지안습니다 그럼으로 먼저털옷을 더운물에 푹당것다가 염액(소금물까지 약품을다노흔뒤)에 넛는데그염액은 맨처음에는 차디차야합니다 그래서 차차서 온도를 올려가며 삼십분동안에 끌토록하고 다시계속하야 삼십분동안끄린뒤에 끄내어 맑은물에빠라말립니다 그런데 물을드릴때 잘뒤저거릴것을 잇지마십시요

그다음은 류화염료로서 미명이나 베를염색하는법인데 이염색법은 각기염료의 성질에따라 약품의분량이다르데 일반염색법으로서는 검은빗이나 감자빗(紫)색이면 그옷감백몸메에 대해서—가마솟에 물을조금붓고 불을때며 탄산소다십오몸메내지 이십몸메, 류화소다 십오몸메내지 이십몸메와 염료, 십오몸메내지 이십몸메를 너코 끄리면서 작고저읍니다 충분이 녹은다음에는 물드릴것이 녀녀히 잠길만큼 물을 더붓고 소곰이십몸메 내지삼십오몸메를 너코 잘저은뒤에 물드릴옷감을 너코 손빨리 몃번뒤적어리고, 온도를올려 넘어끌치안흘정도로 사오십분간염색하고 짜내어 빨리바람을 쏘여츙분이 물에씻서 말립니다

잘자거라 래일또놀자

제마다 알고볼일

급한때 "벼락음식"

◇우선「장」을두고 논지한다면—

—무장、찌엄장、청국장

음식에는 그만한 날자를 지내서 익을만치 익히고 삭힐만치 삭히어 먹는것도 잇지오만은 그 반대로 벼락가치 맨들어 손쉽게 먹는것도 잇습니다。

몬저ㅅ것을 무슨 음식이라고 딴말로 부르는 이름은 업스나 나종ㅅ것은 벼락음식이라고해서 아조 특별한 이름이 부터 잇습니다。예컨댄 장아찌에도 벼락장아찌 김치에도 벼락김치 들은입니다。

그뿐이아니라 장에도 벼락장이 잇습니다。그무슨장을 어떠케담그기에 벼락장이 되느냐고요? 요사이 겨울은 더구나 벼락장의 제철이라 변변치 못한 솜씨를 여러분께 소개하오니 양념정조에 한번 꼭 담거잡수십시요。

벼락장에도 여러가지가 잇지요만은 그중에서 가장 맛도잇고 손쉽게 맨들수 잇는 멧가지만을 추리어 냅니다。위선 첫재로는 청국장 둘재로는 찌엄장 셋재로는 무장입니다。

청국장 시골서는 담북장이라고도하고 퉁퉁장이라고도 하는데서울서는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서울말이 세나가는 세상이라 여긔서도서울말을 취해습니다。위선 콩을 살머서 시루에 담아가지고 무엇으로 시루를 바치어 아래ㅅ목 뜻뜻한데 노하둡니다。하필시루가 맛이아니니 동의가튼것도조습니다。그래서 한사나흘 지난뒤 그 살믄 콩이 떠서 진이 죽죽 흐르거든 절구에다가 너코 쿵쿵 찟습니다。찌을때고추ㅅ가루를 조곰 석고 소곰으로간마추어야 합니다。그런뒤 항아리나 뚝배기에 담어서 김 안나게 꼭 더퍼 둡니다。그랫다가 깍둑이나 김치쪽을 너코 두부와 구미도 겻드려 너허서 쪄 먹습니다。

찌엄장 고추장 메주가 잇지를 안습니까? 그것을 가루로 빠아서 그 가루 삼분지이에 고추ㅅ가루 삼분지일을 석습니다。그래가지고는 물에 풀어서 그 것을 틀리지 안습니까?

한사날뒤 그것이 아조 불어버리거든 소곰으로간을 마칩니다。소곰대신 간장으로 간을 마치면 썩조흐나 어 아까워서 흔히 소금으로마칩니다。단지 그것이 되어서 잘 떠노키가 어려운 때에는 할수업시 간장으로라도 마치는 수박게 업습니다。그러케 맨든 찌엄장은 고치장처럼 그냥 먹어도 조코 찌개를 끄려 먹어도 조습니다。더구나 고치장이 떨어진 댁에서는 아조 십상조습니다。

무장 고추장 메주를 넙적넙적 저민뒤 거긔다가 마뜻한물을붓고 서 통고추를 씨발리고 툭툭 썰어 넛습니다。한 사날뒤 소곰물 간을마치어 다시 곁이삭도록노하둡니다。그래서 곁이 삭은뒤엘랑 그릇에 떠노코 차돌배이 편육을 얄게 썰고 나박김치건덕이를 건지어 그국물에 띄웁니다。고추ㅅ가루를 뿌리어 노흘것도 이저서는 안됩니다。본래 무장은 그이름과가티 국물을먹자는 것이지만은 식성조흔분들은 그건덕이조차 편과하시는 분이 업지안습니다。그뿐더러 그건덕이로 장을지저도 달콤한것이해롭지안습니다。

曆

十二月廿二日 日

十一月建戊子(大、卄七日)

壬申‧金‧虛‧成

●祭祀에宜함

㊐大雪八日(舊月十二日)

㊐冬至二十三日(舊月卄八日)

책보나방석 문의잇게 —염색하는법—

방석이나 책보를 여러가지문의로 염색하는것을 가정에서 간단히 할수잇습니다 먼점 소용되는 천(비단이나 목속이나)을 신문지 위되펴노코 폿뿐이나흑연필로 약간그형체를 아려볼맛은다른 문의를 적당한편에 노와도 그리십시요 그리고그린뒤곽지에다양초를 문대십시요 말하자면 양초로서 그림그리는 셈입니다 이러케한다음 여러분이 조와하시는 물감을 드리십시요 물감을 드려도 양초칠한 부분에는 물이들지안습니다 물감을드릴때 초를 약간처처 뒤적그려가면서 한삼십분쯤 끄려서 랭수에 히여 말립니다 다마른다음 신문지 사이에다 까라노코 대리미로 양초긔운이 업서질때까지 대리십시요 이러케하면 훌륭한 제물수 보제가됩니다

구두손질하는법

오래신ㅅ자면 손질을자주

피마자기름이필요하다

구두는 손질을 잘하고 못하는데 딸아서 또보관 방법이 조코 나쁜데 딸아서오래 신을수도 잇고 빨리떨어저 버릴수도 잇습니다。더군다나 요사이가튼 겨울철은 공긔도 간조하려니와 먼지가튼것이 얼어붓기도쉬우니까 구두에대한 주의를 잘하서야합니다。위선 구두ㅅ바닥에 무든흙을 죄다떨어 버린뒤 피마자유 가리 산화(酸化)되지안코 칠투성(浸透性)이 잇는기름을 발러둡니다。일주일에 한번식은 이러케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이잘배지 안는때에 따듯한물로 적시엇다가 반쯤 말럿슬때 작구문질릅니다。그와가티 손질을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다시한번닥고 신창도 꺼내서 다가갈말립니다。단지해ㅅ볏이나 불에다가죽접말려서는안되고。마른 신문지를 뭉치어 속에 채워가지고 음건(陰乾)하는 것이 조습니다。칠피거든마른 걸레로잘씻고서피마자유를야조 조곰칠해둡니다。그래야만 터지지를안습니다。그러고 구두를 벗어서는반듯이 그날안으로 손질을해야지합니다。마일 그대로밤을 재우면 진흙과 먼지로 가죽의성질이 나빠집니다。또그러고 덧구두를 끼어신엇다가는 곳 벗어서두어야 합니다。그대로두면가죽이 물ㅅ긔에 떠서 못쓰게됩니다。그뿐이아니라 구두약은한사날에 한번씩 발라서무방합니다。그동안은 그저마른수건으로 닥급니다。약을넘어 자조칠해도 병이요약을넘우 과히 칠해도 변합니다。그랫다가는 가죽에 약덧개가안코 또터지고 재미가업습니다。구두에 물이배엇슬때는 헌신문지를 뭉치어속에 너허서 물ㅅ긔를빨렷습니다。너코 또갈아너허서 물ㅅ긔가 업기까지 꾸준히해야합니다。오래동안 보관하려고 할때에는 불여화석탄산소(弗素化石炭소다)란 약을 백분지오로 바르고 그다음구두안팍을 잘칠해 둘것입니다。그래야만 곰팡이가 피지안습니다。그와동시에 구두ㅅ속에다가 묵솜이나 헌신문지를 갓득채워 둘것입니다。그래야만 구두모형이 찌으러지거나 우그러 들지안코 고대로잇습니다。

① 金相德

옛날 멀고먼시골에 김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잇섯드래요.

이 김참판한테는 민철이라고하는 아들이 잇는데 늘 사랑방에 다리고 안저서 한문공부를시겻드래요.

민철이는 어찌 똑똑한지 이글을가르켜줄새업시 쉽게 우드래요그래서 김참판은 이 귀여운 생각에 하로는 민철이를 불러안치고,

『얘 민철아 네나히 벌서 다섯이나되고 글도 그만큼 배웟쓰니 서울올라가서 과거를 봐야 하지 안켓니?』

민철이는 감안이 안저 듯드니 결심한듯이『네― 서울가서 꼭 성공하고 오겟습니다。넘려마십쇼』

하고는 멧칠후에 민철이는 아버님 어머님을 작별하고 서울로과거를보러 길을떠낫드래요.

지금 가트면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댕기지마는 그런것이 다업스니깐 몃천리、몃만리라도 걸어댕길수 박게 업드래요。민철이는 집을 떠나서 험한 산길을 걸은지 닷새되는날이드래요.

한고개를 힘업시 터벅터벅 넘어가노라니까 길엽헤잇는 고목나무 우에서 벼란간에 까치우는 소리가 나드래요.

그런데 그까치 울음은 떡 급한일이 잇는것처럼 슯호게 『까악 까악』울드래요.

민철이는 하도 이상해서 나무위를 자세히 살펴보니깐 까치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갯겨잇드래요.

구렁이가 그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낼름낼름 하니깐까치는 살려달라는듯이 울고잇드래요.

민철이는 깜짝놀라서 가지고잇는 배활을끄내서 그구렁이를 겨양하고쏘앗드래요。조꿈잇드니 구렁이는피를흘리고 땅에툭 떨어지드래요.

그제야 까치는 살아낫다는듯이 날개를 훅훅 치드니 『까악 까악』 하고 고맙다는듯이 민철이를둘아보며 어데론인지 날라가 버리드래요.

민철이는 까치를 살려주고 활을 집어너코는 길을 걸엇드래요.

해마쯤 가노라니까 날이 저물어서 사방이 깜깜해서 아모것도 보이지안는데 어데 들어가자고 가려니 집이라고는 도모지업드래요。

갈수록 압흔 보이지안코 산은 점점 깁허지는데 어떠케해야조흘지 기가맥히드래요。

『그래도 죽지는 안켓지 설마 조곰 더가면 집이잇겟지』

이러케 생각하고 업는기운을억지로내서자꾸 걸어갓드래요。

한참 걸어가다가 바라보니깐 바른편쪽 산꼭대기에서 불이『반짝반짝』하는게 보이드래요。

민철이는 조와서 그험한 산을 땀을 흘려가면서 올라가보니깐 커―다란 절(寺)이드래요。

암만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모다자는지 아무 소리도 업는데 맨구석방에 불이켜잇드래요。

『여보십시요、저는 지나가는사람인데、날은 저믈고 갈곳이 업서서 그럽니다、오늘밤만재워주시면 고맙겟습니다』

하고 불이 켜잇는 방문 압헤서 누가나오기를 기다리고 서잇스니깐 방문이 살짝 열리면서 이뿌다란 색씨가 나오드니

『네 주무시고 가서요、빈방이 잇습니다』

하고 큰방을하나 문열어주고 색씨는、제방으로 들어가드래요

민철이는 암만생각해도 이상하드래요。

목판이나 소반의칠 윤이나고 오래가개

—손질하는법—

지금이 년말이니 오는정월(설)에 만히사용되는 칠긔(목판이나 소반)을 쓸때 특별히 잘 손질을해야 오래도가고 길도듭니다 새로사온칠긔는 칠냄새가 몹시납니다 새로사온것은 그대로곳쓰지말고 바람이조금 통하는방이나 허간가튼데 두어두면 냄새가 나라버립니다

또는 다소윤긔는 잇스나 장뇌유(樟腦油)나 휘발유나 알콜등을 솜에무처 아주 살작살작닥거도 조습니다 그리고 또 볏에다 한일주야쯤 두어두면 칠의 조치못한 성분은 날라버립니다 새로사온 칠긔는 꾸민접법에따라 초칠한것과 곳칠한것등 두종류가 잇습니다 곳칠한것은 칠이속속드리 충분히 발르지안코 칠과함께 드러간 유지분(油脂分)과 한거번에 칠의 주성분(主成分)인 칠산(漆酸)이 표면에 소사나옵니다 될수잇스면 새로사온 칠긔는 오래두엇다가 쓰는것이 조습니다

소반과 쟁반등의 칠긔는 쓰고난다음 종이행주로 더럽핀것을 말끔히 닥근다음 보드러운 마른걸레로 잘닥거두어야합니다 걸레에 모래가튼것이 드러가면 칠이 글켜서 못쓰게됩니다 몹시 더럽펴슬때는 비누로닥는 것은 조호나 오레물을 무처두면 칠이 버서집니다 일반적으로 칠긔는 일광에 약한것이니 볏쬐이는곳에 두어서는 못씁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낡은것에 칠한것이 적지안흔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 가리느냐? 안가리느냐?

금번도『미쓰·아메리카』심사회의 심사원한사람인 조각가『프랭크 비타―』란사람은『미쓰·아메리카』양의 육체미에감격해서 양의라체상을 제작햇섯드랍니다 그런데 그석고원형을본『미쓰·아메리카』양은독난 해수욕복을 입고 모델이되여섯는데 이러케빨가버슨것을맨드러노앗스니 대단섭섭하오 동상(銅像)으로 맨들기전에 어서 헝겁으로압흘가린것으로맨드러주오』

이러케 엄중항의를 햇는데『비타―』씨의 항변은이러햇습니다

『압흘가리면 도리혀 암시적이되오 그럴뿐더러 현대의 대표적 아메리카미인이란 엇던체격을 가젓섯다하는것을 후세에남기기위해서는빨가버슨편이조소』

이러케 서로말성이되자 드디어 유명한 예술가들이 모여 이문제를 해결하기로햇다합니다 제『가리느냐?안가리느냐?』

(사진은 미쓰아메리카와 문제되는석고상)

童話

진주와배암 (續)

『잘못햇습니다』하고 미라노가 말을 하니간 이상스럽게도 미라노의 입에서 장미꼿 진주 금강석이 차례차례 튀여나왓습니다。이것을본 어머니는 놀나시기는커녕

『이게 웬까닭이냐。진주와금강석이 입에서 튀여나오다니。참 귀여운 미라노야!』하고 부르지젓습니다。어머니가 미라노에게향하야 귀여운미라노라고 불는것은 이것이 처음이엿습니다。

미라노는 숲속우물엽헤서 이러낫든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엿습니다。그이야기하는동안에도 미라노의입에서는 여러가지 꼿과 보물들이 밝작밝작 튀여나와서 산가티 차혓습니다。

『오! 그러냐。이번에는 네언니를 우물에보내보자』하고 어머니는 또 욕심이나서 큰딸 아베이룰 우물에 보내랴고 생각하엿습니다。

안모와이마주름살

家庭醫學

問 이십세의 미혼남자입니다 목과안면에 무수히세모가나는데 어떠케하면 업시할수잇슬가요 엇던한약을쓰면조켓습니까? 매약으로잘듯는것은업습니까 그리고이마에주름을어떠케하면 업시할가요? 우에두가지를하교하시요 (寶川의一讀者)

答 얼굴에는 누구나다잔털이나는것이요 그것이 좀보기흉하게자락기로 별방해는 업슬것이오니 그대로 두십시요。탈모약이 무수히만흐나 일일히 약으로 업새렬요도 업지안습니까? 때때면도로나 깍가보십시오 이마주름살도 엇지하는수업습니다。정도문제는 잇슬지언정 누구나 다생기는 것이니가 이런것에 너무념려하실것 업시 건강과 체육에힘써서 훌륭한일꾼이된다면 아모나 주름살잡힌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大學病院 小川外科 金晟鎭)

라디오

二十一日 (土曜)

◇午後六時 管絃樂 一、愉快한사람…뽑스레드作曲 二、伊太利皇帝行進曲…가벤치作曲 三、西班牙舞踊…모스콥호스키作曲 四、誠忠…타이케作曲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金弘鎭

◇同七時三〇分 講演 回想의一年(五) 映畫界 安鍾和

◇同八時 獨唱 一、歌劇『탄호이저』中에서 엘리자베트의祈禱…빠ー그너作曲 二、하날의天使…멘델스존作曲 三、언제가나…리리오카라니作曲 四、아베마리아……슈―버―트作曲 五、歌劇『사도코』中에서 印度의노래…코르사코프作曲 朴景嬉 피아노伴奏 金永煥

◇同八時三〇分 古談 急人錢 申青吾

◇同九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竹枝詞 (나)唱劇調 박타령 姜太弘 鼓手 鄭成俊

二十二日 (日曜)

◇午後零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沈淸歌中 祠堂下直하는데 林小香 鼓手 池龍九

◇同一時二〇分 레코―드 音樂

◇同六時 노래공부(二) 一、별하나공풍…金二葉詞 玄雲作曲 二、英語 공부…兪錫金詞 玄雲作曲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二〇分 心田開發講話 金泰治

◇同七時一五分(東) 國內放送 크리스마스音樂國際放送

◇同七時三〇分 獨唱 聲曲『童子나섯네』…빠하作曲 알토…도로레아·슈레―데르 테노르……하인츠·마르텐 바스……카―르·카만 合唱…라이프치·토―마스合唱團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平和의 使 役 요셉…鄭寅燮 마르다…朴魯多 베드로…張利淑 알네…白英烈 兵…林慶烈

◇同八時三五分 樂歌外 一、樂謠歌 二、긴난봉가 三、자진난봉가 四、개성난봉가 五、경사거리 六、도라지打鈴 演出 金少卿 效果 效果班

◇同九時 合唱 一、첫밤…코―ㄴ쓰作曲 二、요셉과마리…코―르作曲 三、잠자는牧者들…(佛蘭西頌歌) 四、聖誕頌歌…용스트作曲 五、牧者들아드러라…라스作曲 六、피는月桂樹…보라 七、露西亞兒童頌歌 八、聖誕오라토리오中에서(合唱)…빠하作曲 指揮 英米理

◇同九時三十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翌日順序 뉴―스再放送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 歌曲 一、言樂 二、羽樂 三、編樂 四、編 六、太平歌 河圭一 玄琴 安鶴仙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二十三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 모록코의血煙 李命萬

◇同三時一五分 常識講話 冬至이야기 備庭奎

◇同八時 노래공부(二) 一、별하나공풍…金二葉詞 玄雲作曲 二、英語공부…兪錫金詞 玄雲作曲

◇同六時二五分 皇太子殿下御誕生二週年奉祝講演 沈宜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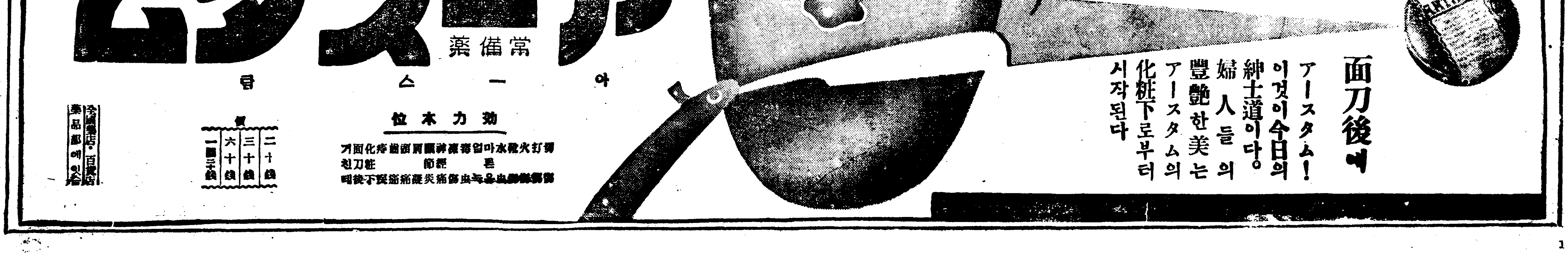
◇同七時三〇分 講演 回想의一年(六) 音樂界 洪永厚

◇同八時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趙素玉 曹弄仙

◇同八時二五分(東) 合唱管絃樂 —銀座交詢社講堂으로부터中繼— 歡喜에게 베―토벤作曲(第九交響曲의終曲) 新交響樂團 合唱 루나오리오코―르 獨唱 소프라노 長門美保 알토 熊澤嘉子 테너― 永田絃二郎 베―스 楯田孝 指揮 山本直忠

◇同九時五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時調 高永泰 大笒 朴鍾基

◇同九時五分 俗曲 一、三絃도도리 二、굿거리 三、打鈴 四、吹打 五、길軍樂 六、別曲 奚琴 金仁洙 大笒 李忠善 細笛 姜鎭洙 杖鼓 金寬洙



秋多星象 ⑧

太極思想의示唆
人衆勝天의星象迷信

安在鴻

×

M三十三番의 大星霧는 光彩가 細인部分을 복판에둣코 그周圍에서 구름가튼것이 多少의 螺旋狀으로 둘러싸고잇서 마치 엣고평이의

太極 形을 비슷듯이 볼과가트니 이不思議의 妙이 太陽系의 生成과 宇宙의展開를 說明하는古今學說의 基礎로 되는것이다 無極이 太極을 나헛다는것은더옥 後世의 說이지만 太極이 兩儀를낫고 兩儀가四象을낫코하는 따위 갈스록 더옥敷衍되던 五行思想의 流源을이룬 太極思想이 멀리中國上代 伏羲黃帝의時代에 비롯하엿다고 하나 太極思想의擴大完成은 中國에서 그본바닥으로 되엇스나 그範圍는 멀리 베링海峽을건너 아메리카『인듸엔』의 社會에까지 共通되어 잇는바이니 太古의社會、天象觀測에서 顯달은 原始的 宇宙哲學을 構成하든 濶茫의時代부터 그

卓越 하든 肉眼의視力으로이런 種類의螺旋形의 大星雲의 怪奇도浩蕩한 現象을 凝視하면서『아아天地의 開闢은 저런소용도리로부터 생겨난것이로군!』하는 類의 原始的 太極思想을 胚育하엿슴은 아니엇슬가?史學者들의 象形文字 解讀에關한 呆象說話가튼것은 이를 어룻이 推斷케하는 一示唆로 되는것이다

×

大陵星이 詩篇에 比擬된事情은 上述과 갓거니와 大陵의 東下에『積尸』라는者잇서 陵墓類緣의 名稱이 부러스스니 卽 페르세우스 A星의西便六度 카시오페아座의境界에 눈이부실듯한

實玉 을光昱의二重星團이오 望遠鏡觀測家에게는 둘도업는귀봉으로 되는 거리이나 그距離 八百光年이나 되는 멀은天空에잇는 一部의 小宇宙로서 中國의古星家는積尸가 明한 則死人이如山이라 고하고『明而大하거나、或有傍星하야 多한則 天下가 多死喪하며、或兵起』라고한것이니 이는 明滅하게 변然하엿스되 肉眼으로 그眞相을 判斷키어려운 古代의 天體觀의 精緻잇는 一面相이다 그런데 여기도한개의 插話가 東西史上에 남은者잇스니 西紀一五一二年에『타이코』라고 하는最初의 新星이 이附近에서 發見되어 그

光芒 이 한참 휘황한金星처럼 나제도잘보엿스나 新星의 常例로 호지부지 업서젓든것이다 이해는 明朝武宗 正德七年 이오 漢陽朝 中宗임검 七年壬申이니『二月二十日밤에 大星이如月相犯하되 或降或昇 하야 勢若相戰』이라고해서 下文에나 올 同武宗元年以來의 星變과 아울러 奸凶亂政의 일흥象徵 할것처럼 畏怖로써 記注되엇든 것이다。『有星이 孛于東井』하다 하든따위浚艇한 光芒이 동때게 번적대는 낫서른新星이 나타낫다가 업서지고할때이면 先人主的으로 微妙한 社會心理上의 衝激을일으키든것이니 湛軒洪大容의 所謂『衆口鑠金…人衆勝天』하는大衆迷信의

現象 으로 되엇든 바이다 慧星의 出現은 現代에 오히려 同一한不安을 만흔사람에게 너허주는 現狀 이다

×

페르세우스座의 變形星 이른 北角星은 變光星으로서 자미잇는 者이니 約三日만큼 두어時間동안 푸르럿다 히엇다 함으로써 古來부터 天界의異觀察로된者이니 肉眼으로서는 하나로밧게 안보이든 者이나 望遠鏡以後에는 實은 두개의별이 同一點의 周圍를 빙글빙글돌고잇스되 하나는 푸르고 도하나는 히어서 엇치락 뒤치락 그 色彩를달리함인것을 發見하엿다 이런별은 다른데도 적지안흔데 天識의알괄이 하나요 實際의距離는놀람만큼 서로 멀은 者도 地球에서 보기에는 겹노힌者 잇는것이니 이런것은

連星 혹 重星으로 이것도 하늘의 景觀에서 趣味잇는것이다 靑白의 따빛으로 變化하는것은 實的變光이어니와『알골』의 그것은 全然 食的 變態인것이니 그는 約三日마듬 엣時間식 四等星以下로 조곰엇다가 다시 二等星의 光彩를 回復하는 것이다 이는 發光치못하는 暗黑星이란者가 그엽헤 다어오면 마치 地球의『달』로 빗을 되바더으로『알골』의 빗을 가리고 쏘아『알골』로 明光한 빗을 내이게하고 그것이 돌아 뒤로 숨길때이면 돌우 그光度가 줄어듬이라고 한다 그런데 米國의『스레빗스』가 發見한바에 依하면 이天識星은 太陽보다 二百四十倍의 光力이잇고 暗黑星도 그 全面에 光線을 바들 境遇에는 太陽보담 十六倍의 光力이 잇다고한다。（以上秋天星象終了）

學藝

映畫一年의概觀的回顧
特히製作된映畫를中心으로

② 朴基采

『春香傳』이는李明牛、金蘇峰兩氏의監督作品으로 所謂錄音시스템은 朝鮮톤이라고하야 中川兩氏南南氏가 責任錄音을한 朝鮮最初의 發聲映畫이엿섯다。이가 토ー키로서 映畫的으로는 엇지되엿든지 現下朝鮮의情勢로서 發聲映畫가 製作되엿다는것은 朝鮮映畫의發展을 示唆하엿섯다。京城撮影所가 생긴以後 이撮影所에서 **一數一** 多한作品을 내여노앗섯스나 朝鮮最初의 所謂發聲映畫를 내여노케된것은 朝鮮映畫界뿐만아니라 一般社會에도 여간한 큰刺戟이아니엿섯다。

이發聲映畫를 外來의發聲映畫의水準에 比하야본다면 完全한失敗作이라고볼수잇다。그러나『朝鮮에서』라는字를 念頭에다가두고 製作되엿다는것을 생각하야볼때 우리는 다ー가티 그印을 激勵하야주지안하면 아니될것이다。

朝鮮보다도 七八年이나 압을선 日本內地發聲映畫의 初期時代를 想像하야볼때 그成績이 果然朝鮮最初의 發聲映畫『春香傳』만이나 하엿섯든가? 決코나은것이업섯다

그러나 映畫的으로 春香傳은 우리가 바라든映畫는 아니엿섯다。

勿論興行을 本位로 春香傳을 製作하엿슴을 노는아니나 나는웨?어春香傳을 大膽하게도 最初의 토ー키로 製作하엿섯나 하는데는내지안흘수업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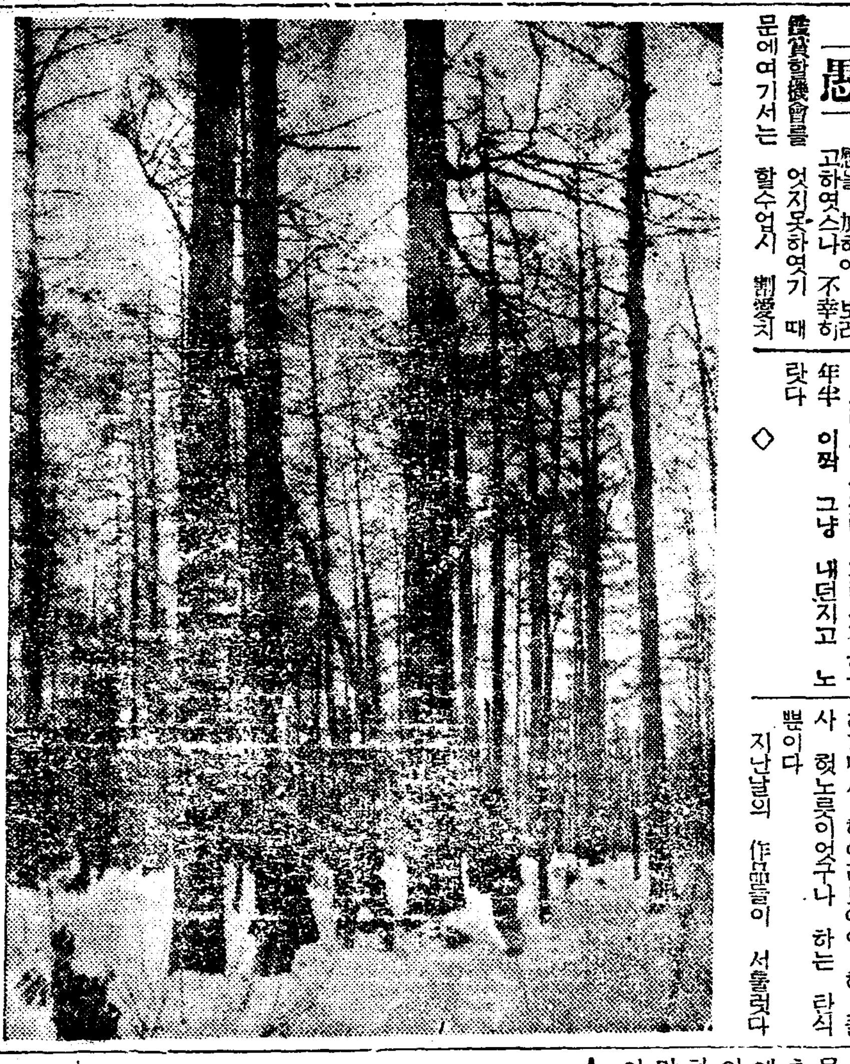
朝鮮古典의 春香傳은 **一朝一** 鮮의國寶的古代小說이라는 것에對하야서는 새삼스러히 말을할必要를 느끼지안흘만큼 周知의事實이다 엇지하야 監督者李明牛氏와 金蘇峰氏는 이小說을 모ー든條件이不備한때도 不拘하고 映畫化하엿섯든가? 우리는 아죽도이 春香傳을 토ー키化하기에는 藝術的 經濟的으로 不備한條件이라야 되지안흘가한다? 果然 發聲映畫로된 春香傳은 朝鮮의國寶的小說春香傳을 無視한感이 업지안하엿섯다。스토리가 너머散漫한대다가 腳色이 統一되지못하야서 春香傳的感興味를 喪失하엿섯고 細部에이르러서는 心理描寫한대잇서서도 缺陷이 만하엿섯다。特히 토ー키 春香傳을 보고 늣긴것을 압호로 演技者의『세리흐』에 잇서서 여간한 苦心이 잇서야할것을 暗示하야 주엇섯다。

하여간 토ー키로서 이作品이 實에잇서서는 收穫이 업섯다할지라도 그功에잇서서는 우리映畫界에 한『페ー지』를 더하야논것만은 事實일것이다。今年度에 産出되던作品을 이로써 大概加味하야본셈이나 이外에도 數多한 作品이 나머잇다。여기에도 **一愚一** 感을 加하야 보려고하엿스나 不幸히 鑑賞할機會를 엇지못하엿기 때문에여기서는 할수업시 割愛지안흘수업다

그러면 압헤말한 映畫가 모조리失敗에 各가운感이 업지안흐니 果然그 原因은 어듸잇슬가? 이러한 問題를 또다시 吟味하야 볼때는 勿論不統一된組織下에서 製作을 하게되는것이 原因이되나 이보다도 하나의더 큰 原因은 完全한 脚本이업섯기때문이다 朝鮮映畫界의 一部에서는 只今까지도 脚本을 重大視안는感이 업지안타 그러므로 여기에서 조흔作品이 나올리야 업섯겟지마는 所謂朝鮮文壇에서는映畫에 對한無關心과 同時에 씨나리오의 使命까지도 否認할樣度에이르럿섯다

朝鮮映畫가 생긴以來 씨나리오를 專門으로 研究하여본듯한분이 몃분이나 잇섯든가?往年의 씨나리오作家로서는 安夕影、李孝石、徐光霽等諸氏엿섯다。그러나 最近에와서는 李孝石、徐光霽兩氏도마저그림자를 감추어버리고 安夕影氏만이『노래하는시절』을 이어바다여 말하라의『春風』을 내여노앗다。

映畫를製作하려할때 아무리가튼原作을 엇는다할지라도 **一脚一** 色이不充分하면 結局그映畫는 失敗에 도라가고만다 映畫史上에 잇서서 製作前의 그映畫의生命은腳色이요 製作後의 그映畫의 生命은 監督이라고말할수잇는것이다。그럼으로 씨나리오라이와ー도 映畫製作上에 잇서서專門的技術家가 아니될것이다。



◇一北…國…의…表…情二◇

隨筆 斷章數三題

② 蔡萬植

文虫이란存在

거진 十年 붓을들고 作品을 쓰노라고 써왓다 그러든것을一年半 이짝 그냥 내던지고 노랏다

◇

騷氣조코 精力조흔 二十으로부터 三十까지 十年을 공드린 그것이 눈을 숫고 머리를 식혀가면서 헤아려보아야 허!풀사 헛노릇이엇구나 하는 탄식뿐이다

지난날의 作品들이 서툴럿다는것 勿論그것도잇다

그러나 그것뿐이면 오히려 수월할것을 도대체質이 낫버 十年 쏴흔功이 아프로 바람을 낼 쏵시 업구나 하는 悔心이 드는 때문이다

ー무슨 일이고 十年을 獨工하면 入神을 하는 法이라는데ー

필경 나는 돌감나무에 香氣조코 입가심조흔 國光사과를 열게하라고 애쓴 野心家이엇나부다 하는 穿착때문이다

지금가튼 주저와 逃避대신차라리 옛날의 虛慾과 蠻勇이나 잇섯드면 되것 아니되것 써내노켓지만 남이 무어라고 한다는이보다 위선 내 낫치 간즈러워 못한다

◇

나는 文學을 戀愛하엿다 하되 이루어지지못할 짝사랑을十年 한것이다 그러컷만 나는 十年 드린 愛着을 아죽도 차마 바리지못한다

나의 執着性은 文學에 뿐이 아니다 가령 이 萬年筆이라고 하고……이것이 손에 길이들고 情이 부러서 소중히 역이든것인데 어찌하다가 길에서나 어데서 일허바렷스며……발서남이 어더갓거나 발에 발펴 못쓰게 되엇슬줄 번연히 알면서 그래도 행혀 여기어데 흘려잇지아니한가하고 길바닥을 유심히 내려다 보기도하고 혹시 이속에 드러잇지나 아니한가 하고 포켓을 無心결에 만저보기도 예사로한다 미련한 未練이다

◇

금년도 해가 이러케 섬난스럽게 저무러가매 다른 여러가지 생각히는것도 만치만 小說한편 쓰지못한채 우둑허ー니 서서 바라보느라니 남이 부러워 견델수가업다 마치 섯달 금음날 목어구에 모혀서서 來日 正月초하룻날 아츰의 설빔 이약이에 제각금 재갈거리는 동리아이들…… 그름에 끼이지도 못하고 한구석에 빗겨나 손가락만 빨고잇는 행랑아이인듯 십히 안타까운 고적을 늣긴다。

◇

最近 무슨 바람이 부럿는지 레ー마나를 도렷이 잡어둔것이잇다 그래서 요새는 이놈을 小說로든지 戱曲으로든지 제법…하는 생각이 드러서 멧번 붓을 잡어보기도 햇스나 生活의 餘暇는 나를 그러케 作品制作에 心身을 悠悠히 解放식혀주지아니한다 그것을 無理를하면 駄作밧게는 또 나올것이 업는것이다 畸形兒를 解産해노흔 産母의 落膽과 恐怖를 나는 同感한다

永永 無後해도 조타 畸形兒는 願하는배 아니다

◇

一年을 月給生활이 아니로 지낼수가 잇다면……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그럴수가 잇다면 半年은 철철 旅行을하고 나머지 半年에 新聞 二三十回짜리 短篇하나를 악가 그 레ー마로 쓰겟다 그래보아서 좀 되것이 나오면 아프로 精進할것이고 亦是 駄作이 나오면 아주 붓을 꺽거바리고。

◇

프라우드를 일코 彈力이빠저 生活의 淸濁이업시 動物的本能에 끌려가고만 잇슨 存在로밧게는 더 보이지 아니하는 내게 왜 文學的執着은 그대지 끈기잇게부터잇는지 알수가업다

◇

『文章은 英雄之餘事니라』 이말은 내가 어려서 집안어른에게 자주 드른말이다 요새와서 절절히 그말의 올흠을 늣기게된다

英雄이래서 그것을 偉人으로 解釋할것은 아니고 人品쯤으로 定하고 다시 作家에게는『世態를 過히 억의려 지지 아니하게 觀察할수잇는 識見의 獲得』쯤에 접어 주어도 조흘데 그러데래도 나는 나를 생각할때에 아죽 먼듯십다ー아니ー더옥 멀어가는듯십다

그러니까 나는 文人이라는이보다 文虫임에 갓갑다

지금 文壇에 나와가튼 다른 文虫은 업는가?

업다면 차라리 文壇을 위하야 安心할일이다

一나의寢室一……詩

一高嶺民一

황혼의 슬기로운 마음을이
나분이 그 우슴 흘너 넘치드니
나의 날개가 머므는 하나 애련한 침실
아기의 숨결가티 뭇척 부드러워
내 파아란 憧憬이 들창 별빗에 어리고
또 가만히 등잔불에 바사길제
어느듯 꿈은 살포시 나를 차저오나니
이때『뮤ー즈』는 나의 숨결을 적히고……。

危機神學의批判

❶ 李石

宗敎는神과 人間을統一식히는 運動의能動體이다。神과人間을統一식힌다는것은 人間을神의支配속에너커나 神을人間의支配속에 너키나하는 卽다시말하면 모든 人間等을 누구나업시 神的一元化하거나 人間的一元化하려는것이아니다。在來 한宗敎家나 唯物論者는 모도가 自體의主觀下에客體가 否定統一되기를 바래엿다。그러나 이것은 實在할수업는 妄想이다。이것은 眞正한 社會的人間의 全體的幸福은 一部가 權力으로써 一部를 抑壓한 統一的 本態의 社會的形態가 아니라 社會的 人間等의 各自的生存內容을 完全히 享樂할수잇는 社會的 生存內容이라야할것이다。故로 眞正한 社會는 經濟的利慾에 支配되는 功利的倫理가 支配될것이아니라 人類의 神的倫理에 支配된 經濟組織의 基礎우에 生存하는 人間과 人間과의 社會이다。따라서 功利的倫理를基礎로한 唯物論的社會觀은 經濟的利欲을 爲主로한 掠奪民族 權取階級으로써 暴力의 集團을 엄우어 人意로 하여곰 戰爭과 革命과 競爭의 對立을 그의 生存內容으로한다。그러나 人間의 生存欲望은死滅 不幸 究暴이 아니엿다。따라서 人間의이 幸福스럽게살기 爲하야 의 戰爭이요 革命이요 競爭이라면 鬪爭에 生命의安保가 잇슬수잇스며 不安과 苦痛속에서 斷末魔的生活의 生命이 究竟에서버서진수잇슬가 그러고 經濟的利欲을爲主로한 民族的集團이나 階級的集團은 먼저 暴力으로써自然과 社會의 모든生産關係를獨占하는것으로써 自民族自階級自己以外의人類를 自然과社會의生産關係와 生存領域以外로 追放하여버린다。如此한 根性이 별서 自民族 自階級 自己의 生活安定을 破壞하는 自體滅亡의 相對的條件에로 만드는것이다。

事實에잇서서 國家와 權力은 必要以上의 物欲에 支配되는民族的結社的集團이며 神的革命的權化는 犧牲된 本能의 反逆에는勝利의 信念을自覺케하나 不當한抑壓에는 沒落의 慘運을느끼게한다。이는神이 民族과階級과 人間의게 對한審判은 人間等의 諸生存內容에 對한 善惡的止揚運動이며 神的倫理에 支配되는社會가아니고는 그禮에과階級과人間의 革命의 洗禮에서避하지못한다。

神을社會的方面으로 認識하는것을 反對하고 神學도잇드시 神을神秘한 心靈的으로만 規定하려는것도 反對하는 神學이잇다 그러나 宗敎는 神과人間과의 關係가아니요 神을中心으로한 人間과人間과의 關係이기 때문에 宗敎의 社會性을否定할수 업드시 在來한宗敎觀은神을 中心으로한 人間과人間과의 關係만을 信徒等의、個人的心理滿足에만重點을 標識해왓스나 그러나宗敎는神을 信仰하는人間等心理個我의 敬虔 神秘的法悅로써만 宗敎의 完全性을 論할수업는것이요 宗敎는神을中心으로 神을信仰하는者와神을信仰치안는者와의相對的關係에서 論議될것이다。

神을反對하는者等을大體로 두가지分類를 들수잇다。一方은 神과 宗敎에 自覺的 要素가 未備한 物質過程의人間等이요、他方은 必要以上의物欲에 支配되는者로써 神과宗敎를 意識的으로反對하는 唯物論的權力者와支配階級 强優民族等이다。卽前者는 神과宗敎를 아직몰으는 純粹唯物論者요 後者는神과宗敎의 性能을아는 似而非的倫理의 功利的倫理者요 此等은 神과 宗敎를 抑壓하거나 政治와 社會에 關涉치못하도록 宗敎的私事에 制限하거나 또는 利用하거나 한다 權力과 階級과 民族의集團을 構成하는 功利的倫利가 神과宗敎를反對하는 途程에 잇서서 神과宗敎가 彼等의物的利欲을爲하는대 防害됨이업거나 오히려 利되는點이有할때는 國家와權力은 神과宗敎를利用하고 此와反對되는境遇에는 神과宗敎를抑壓한다 그러나 神을抑壓한다는것보다도 宗敎를抑壓하는同時에 無神論으로써 神의存在를 幻影으로否定하고 宗敎를蒙昧와 魔術이라고도貶斥한다。

新刊紹介

◀宗敎時報 十二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耶蘇敎長老會總會宗敎敎育部發行 定價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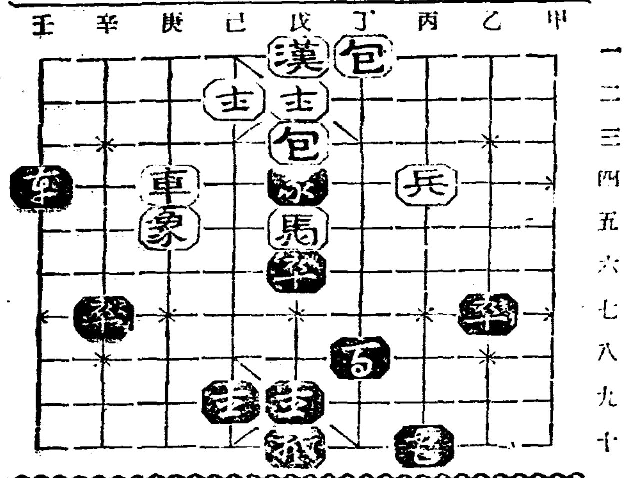
◀神學世界 第二十卷第二號 京城府冷洞三一 神學世界社發行 振替京城四六四〇番 定價二十五錢

將棋名手對局譜 (七)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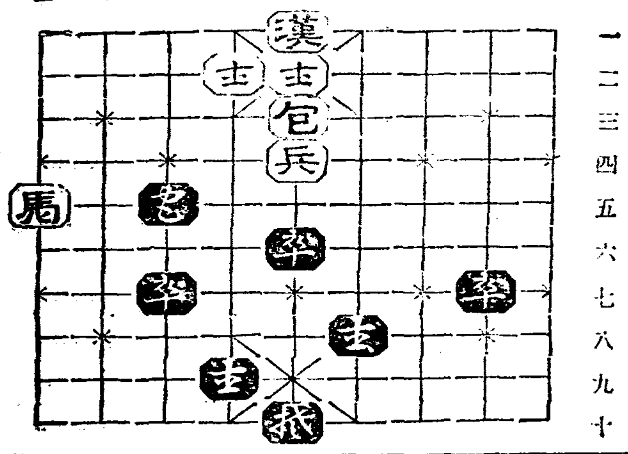
楚先手 一象減 李在鳳 對 丁奎東

◀圖手十六▶



◀圖手十七▶

壬四[車]ー壬四打車
戊五馬ー丙四打車
丙十[包]ー丙十
庚四馬ー壬五
辛七[卒]ー丙七
丙四兵ー丁四
庚十[車]ー庚五打象
丁二包ー丁八打馬
戊九[包]ー丁八打包
丁四兵ー戊四打象



黑風 【206】

韓龍雲 作
金能超 畫

큰락(淪落) 2

『당의 자금이라는것은 당의 필요한일을 위하야 쓰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상회의 안색은 흥분되얏다

『무론이지』

『그러면 웨 필요한때에 지출하지 안는가?』

『당에는 당의 규률이 잇지아니한가 당의 규률이라는것은 최고명령으로 당원은 누구든지 복종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거든』

『나의 요구가 규률에 위반되는것이 무엇인가』

『위반되는것이 업다니 그대는 당의 규률을 모르는가 당원을 가입식히는것도 처음에 당원 두사람의 보증으로 천거하야 간부회의에 제출하면 간부회의에서 그것을 토의하야 가결이되뒤에 그사람의 성격과 품행과 사상을 조사하야서 다시 당수의 결재를 맛흔뒤에 비로소 입당식을 거행하는것이오 돈으로 말하야도 백원이상의 돈을 지출하는때는 반듯이 간부회의를 경유하는것이 정치인대 그대의 요구가 당의 규률에위반되지 안는다는말이 무슨말인가』

하는 왕한은 상회를 노려보면서 거의 경멸히여기는 태도를 취한다

『나도 변변치는 못하나 당원인이상 그만한 규칙을 모르는것은 아니야 그러치만 긴급필요한 때에는비상시출을 하고서 사후 승락을엇는다는 단조(但條)가 잇지아니한가 그리하야 그단조를적용한 례가 한두번이 아닌대 특별히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나는 부대조건이 부터잇는가』

하는 상회의 어훈은 아름답지 못하얏다

『그러나 그대의 요구에 대하야는 나로서는 그 단조를 적용할만한 필요 불가결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안네』

『어째서?』

『어째서든지 그것은 나의 주관이겟지』

그들의 주위의 공기는처어도 칠백미리 이상의 저기압으로 비저지는듯 하얏다

『혁명운동 이라는것은 비밀운동이오 그중에도 정보부라는것은 가장 기밀사항을 만히 관리하는 곳인대 정보부장의 직권을 그러케 무시할내서야 어듸 혁명운동을 해먹겟나』

상회의말은 조금 탈선이되얏다

『직권이라는것은 정보부장에게만 잇는것이 아니라 재무부장에게도 잇는것이겟지』

왕한은 모과로 던지는데 모과로 갑헛다

『돈 삼천원에 그러케 졸피게하는것은 백면서생의 일이라 어찌 천하사를 의론하리오 허물며 혁명운동은 비상한일인대 그러케 규모를 가지고 어찌 대은 혁명단체의 재무부장이 될수가잇는가』

하는 상회의 말은 어섬이놉허지면서 인신공격으로 드러간다

상회는 재조가 잇고 민첩한 사람으로 기밀사건을 조종하는데는 민활한 수완을 가젓스나 의지가 박약하고 교활한데 가까웟다 그리하고 주색을 조아하는 사람으로 항상 비밀교제 라는것을 구실삼어서 기밀비의 사용에 아름답지못한 평판을 듯든 인물이엇다 그러므로 왕한이도 그의 청구에 대하야 먼저 신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의말이 불순한데 대하야 더욱히 조치못한 감정으로 경멸히여기게 되얏다

그러나 그만한일로 서로 얼굴에 피때를 올녀가지고 오신각신 하는것이 내부적으로도 재미가 업슬뿐 아니라 어섬을 놉혀서 밧긔 사람으로듯게 하는것이 비밀을 루설할 념려가 잇서서 바게 우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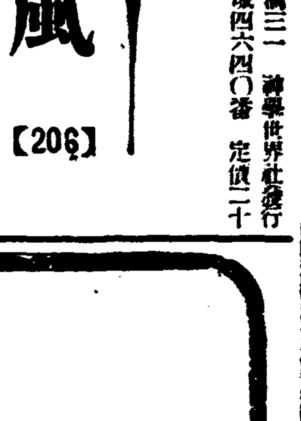
『그만두세 그만일로 어섬을 놉혀가면서 다툴것이야 무엇잇나 황선생(혹)이 오시거든 상의해서 하세』

『혁명운동이고 발금쟁이고 만두겟네 나는 정보부장의 자격이 업는 사람이라 곳 사면할려이니 자네가 겸임하게 자네는 당규를 잘 직히는 충실한 당원이오 나는 당규를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상회가 뛰치고 나갓다

美와健康의榮養素

眼鏡肝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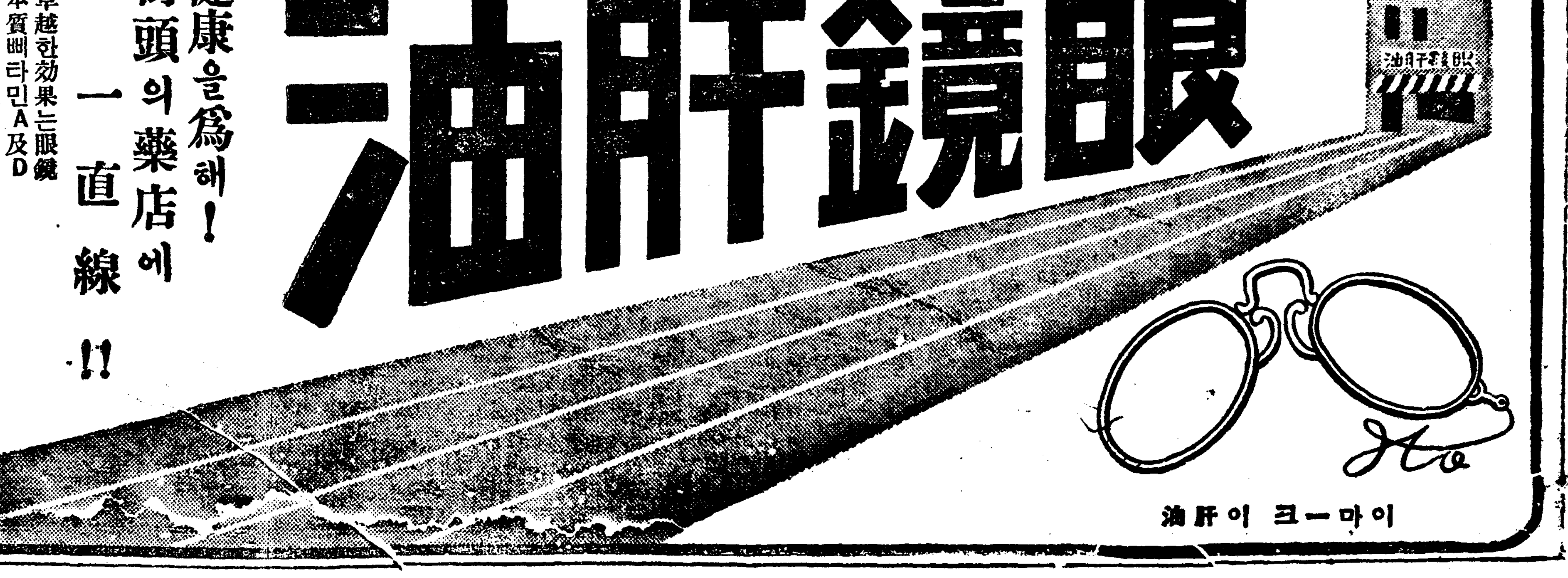


자ー健康을爲해!
街頭의藥店에
一直線!!

眼鏡肝油의卓越한效果는眼鏡肝油獨自의本質삐타민A及D의含有量에빗치여보드라도第一조흔逸品이라고하는것은明確히나타난다。運動、睡眠그런다음에榮養即眼鏡肝油의愛用이것은참다운近代人의健康常識이다。닥처오는酷寒을防備키爲하야虛弱한분들에게이經濟的榮養素를推奬하는바이다。近處藥店에서買求하시라

文獻進呈

大阪道修町三丁目
眼鏡肝油本舖 メガネ肝油 伊藤千太郞商會



이마ー크이肝油

旱災地全南道內의 救濟費補助大削減
所要經費八十餘萬圓中에서 不過四十餘萬圓決定

【光州】한재ㅅ제사업예산 팔십오만원을 부의하기로하는 전라남도림시도회는 금이십륙일에개회하기로결정되엿는데 이팔십오만원중 국고보조액은 사십여만원으로 당초 도의 희망하는 액의반액이하로되엿스므로 전남도에서는 기외부족액은 도의긔채를가지고 충당하여 보조금에 합하여 토목(土木)수리(水利)사방공사(砂防工事) 종곡급여(種穀給與) 구제(救濟)비등에 사용하기로한다 토목사업은 주로 한재지부근의 도로공사 수리사업은 장래한재피해를경감하게하는 류지공사(溜池工事)이다 사방공사는 한재리재민이가장만흔 지방을선택하야 실시하리라고한다.

貨物自働車 汽車와衝突 三名이重傷

【永登浦】십구일 오전여섯시오십칠분 경인넘차 제사백이십호렬차가 경부, 경인 분긔점인 영등포기점 약이킬로팔백미돌에 전인단절(踏切)에 다다랏슬때 인천 조일양조장(仁川朝日釀造場)으로부터 술을 만재하고 운전수 리도명(李道明)(二五)이가 운전하야 전긔장소를 건느랴하든 경인화물자동차 경제를 선로에서 약이메돌밧그로 떠밀려 도락크는 대파하야 동승자 삼명은 전부 중상을 당하얏슴으로 렬차는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 전부를 룡산철도병원(龍山鐵道病院)에 수용하고 응급치료중이며 생명에는별관계업슬모양이며 영등포서에서는 현장을 림검하고 목하조사중이라한다

小作畓三斗落에 水稅만이 一石三斗
小作料는藁草까지半分하고 無理한李地主의要求

【一山】논삼두락에서 소작인의손들은 석섬차지를못하는데 수세 두섬서말두되를강청하야 작인의 소득까지 다가저가려하는 지주가잇다— 고양군 중면 장향리 김욱희(金旭熙)란 사람은 경성부죽첨정삼정목 리가순(李可順)의소유로지 삼두락을 소작하든바 금년에 가물기때문에 지주리가순이가 발동긔로 한강물을대여 주엇는데 원래 수세는 작인이 부담되는것이 한말직이에 대하야 소두로 두말 혹은 한말반이고 소작료는 작인처에서 타작을 해서 곡물만 절반을, 지주가 가저 가고 곡조는 작인을 주는것인데 리가는 벼를 떨지안코 벼뭇으로 절반을 난우어서 백칠십팔뭇에 곡조까지 가저가고 수세를무리하게도 두섬서말두되를 강청함으로 김욱희는 이를거절하고 보통규례대로 모짜리 수세다섯말 모내수세너말반을 합해서 아홉말반을가저가라고 하엿든바 리가순은이를 불응하고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송을제긔하야 오는일월륙일이 판결날이라는대 일반동민들은 이판결여하를 주목하고잇다고한다

中央保育園同情 音樂演奏會開催
本報外兩支局後援

【京都】경도시자경구전중현경정(田中玄京町)에위치를 두엇든재류동포의 유일한교육긔관인 중앙보육원은지난구월상순에 재류동포진단의중심지인 중경구서천본송원통(中京區西天本松原通)으로 이전한후 보모증원(增員)과 원사수리 기타설비즉실등 면목을일신히하고 이래경영하야 오든바 번잡한도시에 자연따르는 교통화(交通禍)와 원거리에잇는 원아를 위하야는 자동차가 절대필요함을느겨 동보육원유지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결과 자동차구입긔성회가 조직되야 벌서희사금이 이백여원에달하얏다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소긔한목적에 달키는 아직요원하므로 오는새해 정월사일오후칠시에 본보외량지국후원으로 삼조긔독청년회관(三條基督靑年會館)에서 유지금모집을위한 음악연주회를 열게되엿다는데 당야에 출연할악사는 해외활동으로 명성이 자못노픈 동경조선인음악가협회(東京朝鮮人音樂家協會)회원 다섯분으로서 당지에서는 초유의 성사일것이라고하야 벌써부터인긔가 백열화하얏고 일반유지는 오십전으로서 일반재류동포들은이 영유긔관을 찬조하는 의미로 만히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第二回全州府會

【全州】전주부에서는 지난십이월 십구일부터 약삼일간 예정으로 소화십년일월일일부터 삼월말일까지의 전주부 제일제이특별경제 세입세출예산의 부회를 개최하고 동십구일 오전에는 조선인의주목되는 제이특별경제에대한 제일이독회가 잇섯는데 시내 삼초등학교(三初等學校)학급연장관계에 밋치는교사확충문제로 이만원에매수된 전주전소학교사(前小學校舍)의위생시설부족문제와 학교의(學校醫)문제로 장시간 토의한바 잇섯는데 필경은 일시 휴회하고 의원일동이 소학교를 실지시찰하기까지에 이른후 동오후두시에 휴회하엿다 한다

論山郡內小作爭議 一年間百二十件
作權移動이最大原因

【論山】론산군(論山郡)내의 금년일월부터 십이월까지의 소작쟁의건수를 조사한즉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 소작조정신립(小作調停申立)을 제긔하야 론산군소작위원회(論山郡小作委員會)에 권해명령에 부한것만 백이십일건으로 그중에는 소작권이동에 관한것이 백칠건 소작료감면에관한건이 십사건이라는바 그외에 비용기타관계로조정신립을 제긔치못한것을 합산하면 상당한 다수에달할것임으로 지주의 발호가 얼마나 심한지를 가히 추측할수 잇다한다

農靑訓練所落成式

【舒川】충남서천군에서는 당군수의 열성과 당지인사의 후원

平北本末寺聯合 布敎堂新築決議

【妙香山】평북본말사에서는 녕변(寧邊) 강계(江界) 태천(泰川)등지에 포교당을 건축하고 다년간 포교사업에 로력하든중 금번 신의주(新義州) 평양(平壤) 희천(熙川)삼대도회지에 포교당을 신축하기로 결의된바간부측에서는 그간긔지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인부군에 불하교섭을 진행중인데 불원에 실현되리라고한다

會寧支局主催 讀者慰安映畫
來二十四日에

【會寧】본사회령지국에서는 세모를 당한 이때에 본보애독자 일반을 위안키 위하야 오는이십사일에 주야이회에 나누어세계 유일한 이스라엘달(모세의십계명)(十誡名)과 곡예단(曲藝團)의명화를 당지극장에서 상영하기로 되엿는데 본보독자에게는 특히할인권을 배부하리라고한다

西大、小陽兩大川 堤防延築을陳情
每年水害의損害不少하다고 鶴泉面民代表로부터

【咸興】함남홍원군 학천면(洪原郡鶴泉面)민대표 김기협(金基協)강용국(康鎔國)외이명은 련서로 멧칠전 함남도 토목과에대하여 동면을 관류하는 서대천(西大川)제방을 구백메돌가량연축(延築)할것과 또 서대천(西大川)지류인 소양천(小陽川)제방을 약이백구십메돌가량더 연장축조하여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왓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인즉 전긔 서대천(西大川)은 히현호랑하천의 한류로서 그류역은 동면학산리(鶴山里)와 구개리에 팔백여정보의 광대한 면적인데 약삼백오십여년래로 순전히동면주민들이 서로부역하여 제방을 축조하여왓든바 불행히도 지난 소화삼년대홍수로 인하여 제방이 전부 결궤되고 말엇슴으로 일조에 수란의 위험에 빠지게 되엇슴으로 루차 당국에 진정한결과 지난팔구십의 삼년동안 궁민구제사업으로 오천사백미돌의 제방은 축조하엿스나 그제방이 풍동리(豊洞里)까지에 끈치고 그하류연안은 제방을 축조하지안햇슴으로 하류연안인 풍양리(豊陽里)등 오개리의 이백호와 삼백여정보의 옥토는 어느때에 수해의 위난에 빠질넌지몰으는형세에잇스니 제방을 다시 하류구백미돌만더연장축조하여달나는것이며 소양천(小陽川)도 역시 소화삼년 대홍수에 제방이 결궤되엿든것을 당국의 보조와 민간의 삼천여원의 거금(醵金)과 이천여명의 부역으로 동면중양리(中陽里)의 중간마지 일천삼백메돌이나 제방을 축조하엿스나 학동(鶴洞)동평(東坪)등 사개리와 중강선(中江線)이등도로는 전연 그동리에 밋지못하고 매년 수해로생명재산의 손실이 적지안흠으로 다시 그제방중 강선도로와의 련결점까지 이백구십미돌가량 더연장하여달나는 것이라한다

稅關吏又復暴行 良民을毆打監禁
被害者는二週日餘治療의重傷 義州署에告訴를提起

【新義州】신의주는 국경의특수지대인관계상 세관리의 횡포가 빈번하야 물론을 니르키는일이 만커니와 신의주세관 의주출장소원 다섯명이 관권을 람용하야 량민을 구타 불법감금한중대사건이 얼마전에 발생되여 피해자량민은 분울을 이기지못하야 지난십칠일 의주경찰서에 고소를 제긔하얏다 그내용은 의주군주내면 서호동(義州郡義州面西湖洞)김칠성(金七成)(三五)은 지난십이일 안동 대안 만주땅으로부터 마초속 여섯포대를 우차에 싯고 세관에 정당한 수속까지 한후 의주읍내로 운반하든중 의주세관출장소원방용모(朴龍模)(二三)가 돌연우차를 세우게하고 힐난을 함으로 김칠성과우차부는「이물품은 정당한 수속을 한것이라」는것을 주장하엿스나 세관원은 강제적으로 김칠성을 세관출장소 안으로 끌고드러가 이날 오후한시로부터 밤열시까지 감금하여노코 소원다섯명이 번갈아가며 구타하야 치료 이주일의 상처를 내엿다는것인바 의주서에서도 출장소원들의 무법한 소위에 놀라 엄중한 취조를 행할작정이라한다

鰥寡孤獨爲해 同情메달行商
新興學校生徒의赤誠

【全州】전주신흥학교학생긔독청년회에서는 매년년말을당하면 긔한에우는 환과 고독에게 한때의 다스한 밥이라도 제공하고저동정메달을 팔고저 지난 십팔일부터 부내각요소요소에 수백학생이 대를지어 일반의동정을구하는중이라는데 이에대하야 일반부민은 동신흥학교학생에대한 칭찬이 매우놉다고한다

地方人事

▲曹圭煥氏(殖銀會社全南監督)新任人事次本報木浦支局來訪
▲尹明燮氏(本社鎭南浦支局長)身病으로 지난七日上京 帝大病院에入院治療中
▲李淸俊氏(高州郡農會技手)新轉入事次本社鎭二浦支局來訪
▲吉武俊次氏(大同警察署警務主任)新任人事次 本社平壤支局來訪

異次頓의死 【64】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그러나 이차돈은 이 비밀을 알아내지안코 그냥 둘수는 업섯다 반달이 하는 말ㅅ속에는 필시 무슨 큰 음모가 잇는것 갓헛다.

『반달아!』

『예?』

『너 내 반달이지?』

『그럼은요. 서방님의 몸이 서방님ㅅ것과 가티이몸은 서방님의 반달이오. 이몸은 서방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서방님 가는 곳이면 어듸나 따라가는 반달이오. 서방님이 아모리 떼어버리려하시더라도 서방님의 몸을 떼어버리지못하시드시 서방님 그림자 이 반달은 못 떼어버리시오.』

『그러컨든 바로 말해라. 네가 그런 소리를 어듸서 누구헌테 들엇는지 똑 바로 말하란말이다.』

하고 이차돈은 이번에는 반달의 두 어깨를 꽉붓들엇다.

반달은말이 업시 고개를숙인다

『반달아!』

『예?』

『너의 집에 요새에 신라에서 누구 온 사람 업니?』

『몰라요.』

『몰라?』

『신라에서 명주 팔러 오는 사람이 겨울이면 가끔 오지오.』

『칼 찬 사람이 아니 왓더냐 말이다.』

『몰라요?』

『그러면 너 그 말을 어듸서 들엇니?』

『......』

『똑 바로 말을 해? 너 아버지헌테서 들엇니? 그러치?』

『......』

『바로 말 안 할 테냐?』

하고 이차돈은 칼ㅅ자루에 손을 대면서,

『필시 네 아비가 내 정탐을 해서 신라에 잇는 말 업는 말을 일러바치는 모양이로고나. 그러케 생각하면 내가 걸리는 것이 업는것도 아니다. 내가 메주한가의 집에서 나올 때면 그 압해서 가끔 네아비를 만나길래 어듸 가다 오느냐고 물으면 네, 장사일로, 하고 대답하길래 그런줄만 알앗더니 이제 생각해보니 필시네아비가 내 뒤를 밟는 모양이로고나. 네아비 일을 네가모를 리가 업지. 똑 바로 말을 해야망정이지 만일 긔이면 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너의 집 식구를 모도 죽여버릴 터이다.』

하고 칼을 번쩍 들엇다.

『서방님!』

하고 반달은 이차돈의 옷자락을 붓들면서,

『똑 바로 말슴하께, 그 칼을 도로 꼬즈시오. 서방님 손에 그시퍼런칼을 보니 무서워요』

한다.

이차돈은 칼을 꼬즈며,

『그래 바로 말해라』

하고 이차돈은 가여운드시 반달의 등을 만진다.

『서방님. 똑 바로 말슴을 엿줄테니 이몸을 버리시지마시오 서방님이 이몸을 버리고 가시면 이몸은 죽어요. 이몸을 버리시랴거든 차라리 이몸을 그 칼로 죽여주시오.』

『어서 말을 해라.』

『이몸을 안 버린다고 다짐두시오. 하느님을 두고 다짐 두시오. 검님을 두고 다짐두시오. 이몸을 안 버리신다고. 하늘 다흔 끗까지 가시더라도 한나라에를 가시더라도 서방님 그림자모양으로 다리고 다니시마고 다짐을 두어주시오. 이 말슴을 엿주면 서방님은 해가 뜨기전에 우리집에서 나가실겁. 이몸을 버리고 가시면 이몸은 어찌하게. 서방님. 어서 다짐을두어주시오.』

『그러치만 나는 너를 다리고 갈수업는 곳으로갈지도모를것을』

하고 이차돈이 주저한다.

『어듸를 가시더라도 이몸은따라갈것을.』

『중이 되어서 절에를 가면?』

『절이라도 따라가서 절문밧게 살지오.』

『만일 죽는다면?』

『가리 죽지오. 서방님몸둥이치마로 싸다가 무덤을이고 이몸도 그겻헤 못치지오.』

腦神經衰弱の隱れたる原因

生殖器發育不全의 機能障害

健全發育은……

男子의特長活潑한元氣를振興하며

腦力記憶을增進한다

顯著하게도

顔色에生生한元氣도업고、光澤이 쏘이는것갓치視力이弱하고아모리해도身體가 느리하고頭腦가멍ー하여 神經衰弱에걸엿다고짜증내는靑年들이만치만 最新醫學의證明하는바에依하면 男子의特徵인元氣、腦力、奮發心은、生殖腺의호르몬內分泌이根源이됨으로써腦神經衰弱은그무슨原因으로서連絡的으로生殖器能의障害를伴侶하고잇다、그리하야腦神經衰弱을復活식히는데는

將軍을捕虜하려면

몬저 그乘馬를쏘(射)라고 하는 比喩와가티、몬저生○器의 健全發育을 圖謀하려면 機能을盛케하면、原根이 튼튼하여저서、自然全身에元氣가 旺盛되며、憂鬱튼氣分도快活하게 轉向하여、腦力記憶力增을 進식히며前途의成功에邁進하는奮發心도 일어나는바 그러타고 迂遠的間接療法이나無責任한器具에는 高價한金錢을消費하더라도 効果에그러타할點이 업슴으로 失望後悔하게되엿다고 하는분이만치만

嶄新物理療法

世界的發明品인 日獨佛專賣特許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 生○器에 直接使用하야 具體的物理療法을 行한結果를 보앗다고 好評이嘖嘖 本器는理學的機構精巧를다하며 外形은적고使用에輕便하고効力이超凡하여、使用하면 目前에眞空眞空引力을 이르켜서、貧血萎縮의 生○器에도、新鮮한血液이流集하여、海綿體組織을擴張하야、發育力을喚起하며、漸次그効驗이本器의

메ー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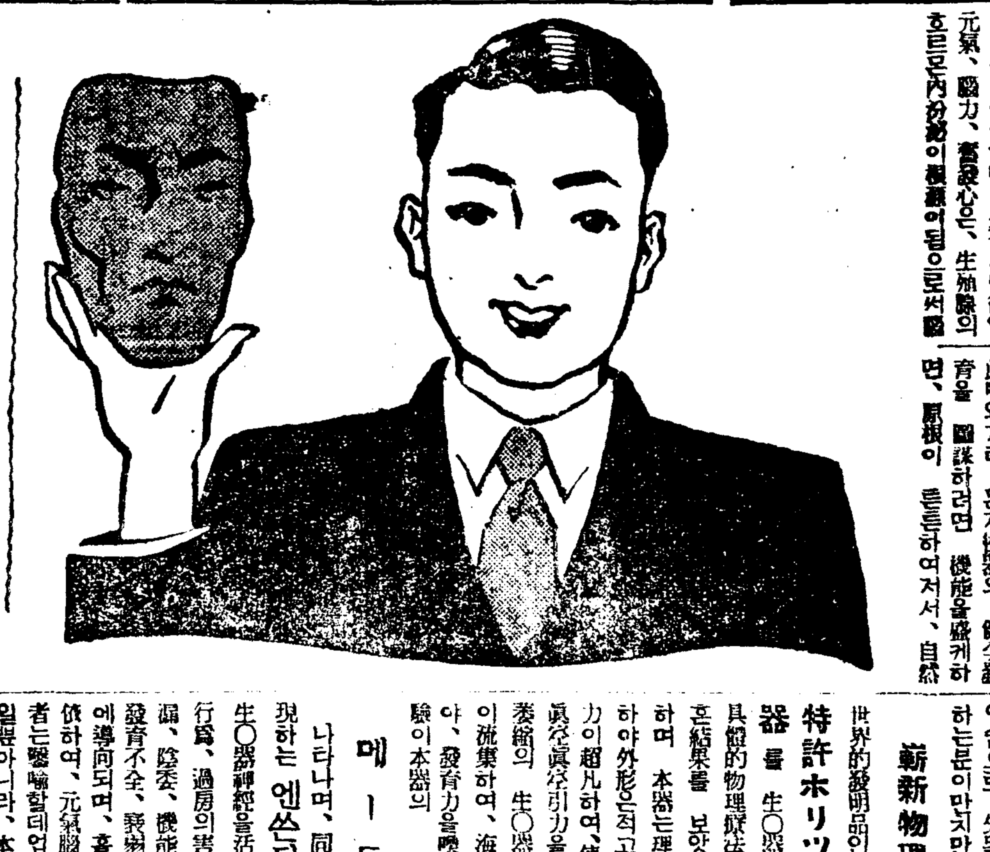
나타나며、同時에理學的으로發現하는 엔쓰뎡作用에 依하야生○器神經을活潑케하며、不自然行爲、過房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機能障害를復活식히며發育不全、衰弱、爛出도健全發育에導同되며、호르몬의自給自促에依하여、元氣腦力도增進되여回復者는變化할데업는滿悅을感謝히녀일뿐아니라、本器는、겨우五圓의廉價로서

一日一回、一回 約十分間

自己혼자秘密히使用하며、男子로태여나서人生天賦의幸福을다하며享樂하며、平和한家庭을지음과同時에、遼遠한前途를爲하야、運命開拓의第一步로써男子의資格을完成함에努力하여야됩니다。

○生殖器의强健을根元으로써 腦力記憶力增進 日常의性格까지도 快活하게된다

進步된호르몬科學은、男子의特徵인 活潑한 元氣、勇敢한膽力、活動力은、生殖腺을根元으로써 生한다고說明되고잇지만、事實이런新學說대로、生○器가 健全發育하야機能이强健케되면、그것을基調로써 頭腦가明晳하게되며腦力記憶力을增進하야 奮發心이일고、日常의氣分까지도快活하게되야 人生이 明朗케되는 길봉의길을밟게됨으로써、前途成功幸福의 門을開拓하는열쇠(鍵)로써 滿하게生○器能을健全케하며、男子一生의 資格을完成식히시라。



日獨佛專賣特許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推奬證明 博覽會名譽金牌受領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二五錢 植民地五五錢

包莖……째지안코、自己로秘密히될수잇는

登錄商標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 內地十五錢 植民地四二錢

◎代金引替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說明書添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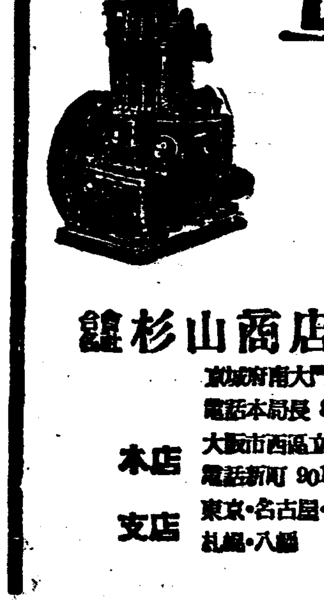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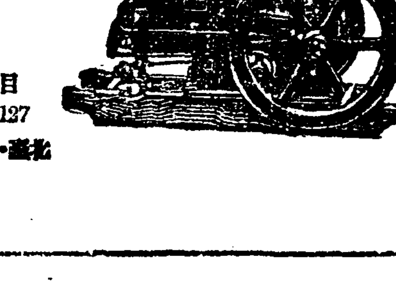
匿名으로密送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造化의秘密、性的新知識을 開放的解說、本器의內容도、詳細說明되엿生○器弱小男子의 深刻한悲哀의事實、回復者가滿悅을어든感謝實驗文도 多數揭載、꼭한번一讀하시라、秘密安心하기고 葉書로서照會하시면全部匿名密送

◎僞物 效果不完全하고속기쉬운模造品僞品이잇슴니다、반드시ホリック란商標가잇는ホリック眞空水治器 求하시오

東京芝區神谷町十八 合資會社 東京新療法研究所 電話芝 二二二番 振替東京七七三九番

クボタ의……

ディーゼル機關

石油發動機

伊獨米英日特許アーノ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文獻送呈)

鑵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札幌·八幡

먹으면五分에下熱함

竹村製의 돈뿌구

藥價廿錢 卅錢 五十錢 一圓

大阪東區南久太郎町二丁目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最高의會社意義잇는大事業發進

第一 ... 第二 ...

內外貿易 大阪港區 株式會社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합

京光式 籾摺機 精米機 發動機 製粉機 製油機 / 各種籾摺ゴムロール 各種ゴムベルト スヱヒロ米撰機 引拔シャフト 各種細粒自動メタル 舶來トKドベアリング 國產NKドベアリング 玄米工場設計納置一式

京城府蓬萊町七一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李光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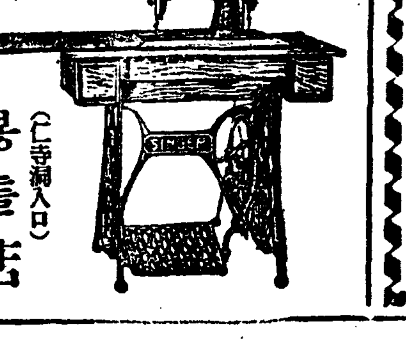
電話長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一五番 電略(ケ)又ハ(ケイ)

平元線順川驛前

紡績麻絲 織機用品 卸商 順榮商店

在庫品豐富 見本及型錄進呈

電話一四番 振替京城二一四八五番



싱거ー中古재봉틀

十五種足踏型 九十五圓부터

十五種手廻型 八十圓부터

(五個年絕對責任保證附) 市內마다限해서月賦販賣함 各種재봉틀目錄進呈

재봉틀賃貸一月五圓

⊙쓰던재봉틀高價買入

京城鐘路二丁目二七 (仁寺洞入口) 楠재봉틀店 電話光三九六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有賀光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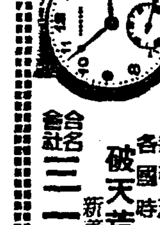
資本金參千萬圓

─※─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잇슴

好職業

男女適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無稅港大連經由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價提供

新義州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三一洋行時計部

商報進呈

히스테ー리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株界一年

十一月에入하야 重要産業의反應、汪兆銘의遭難、中國新通貨政策等으로 株力이 一頓挫되고 東新은 百六十圓割을示하얏스며 上旬貿易의不振、上海의水兵狙擊事件等으로 日中關係의不安도잇서 買人氣萎縮하얏스나 米國과日本의 景況은 依然好調를示하고 北中自治運動이 實現性을示한데다가 蔣介石의 五全大會席上親日演說로 十八日은 賣方의 踏上과 新規買進出하야 市況이 全面的昂騰을 招來코 東新百七十六圓八十錢으로 昨春三月以來의 新高價에 躍進하얏섯다。

×

그런데 日産株의 減配에發端하야 株價에 一時에 殺到하야 五圓乃至八圓의 急落을示하얏스나 月末歐洲時局의 惡化로 船舶、軍需工業株를 先頭로 急反騰하야 結局東新三十二圓二十錢 東新百七十五圓十錢、日産七十五圓四十錢으로 好況이엇다。

×

十二月에入한後는 大取組、盤組解散說等으로 月初賣叫되고 東新百七十圓을 老境이라하야 整理必至가 豫想되며 商品界不動、北中自治問題解決等과 相俟하야 全面的低落이 豫想되는 反面에는 鐘新은 佛込徵收說을 現傳하야 山一의 大口買思惑으로 突破의 活況을 呈하고 大新은 長短合倂認可內定을 好感하야 暴騰되는等 市場市勢가 繼續되엇고 東新은 東京增資期四十四、五萬株取組整理說이 高調되는 가운데 依然市勢는 緊張하야 百七十圓割을 暫現함에 高價保合이 繼續되어 [illegible] 年內無市勢論、整理必至論等 [illegible] 觀測이 거듭되엇스나 市勢는 依然不動이엇다。北中問題는 北中政權의 名稱을 冀察政務委員會라하야 十八日成立式을 擧行하야 [illegible] 하얏스나 學生運動으로 別無好感이엇고 [illegible] 綿絲二百圓割等、人絹生絲等重要商品不動에도 照應도업시 東新은 依然保合高價를 堅持할뿐이엇다。

×

鐘新은 過買反落、大新은 長短合倂條件 嚴重으로 認可에 難色이 잇다 하야 百圓 [illegible]

十一月中旬까지의 實勢은 一月以降 十二月中旬까지의 買易은 入超一千三十九萬圓에 不過하야 남어지 一旬의 分을 合해도 三千萬圓內外 入超에 止할 豫想이어서 貿易大改善이나 이것의 好感도 업섯는데 本稿를 쓰는 지금 卽十二月二十一日 前場大引値는 朝新三十二圓八十錢、大新九十七圓四十錢、東新百七十二圓九十錢、日産七十一圓四十錢이엇다。

×

이제 朝新、東新、大新、日産의 各月別 高、低、初、終의 値를 示하면 如左하다。

◇…朝新株

	高價	低價	最初	最終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株

	高價	低價	最初	最終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株

	高價	低價	最初	最終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株

	高價	低價	最初	最終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十二月二十一日까지의 高低幅은 前場一月—十一月까지의 高低幅以內에잇슴으로 結局지금까지의 今年中 諸株價幅은

朝新 九圓三十錢
大新 二十二圓五十錢
東新 四十四圓五十錢
日産 四十圓五十錢

이엇는바 남어지 年內市勢는 果然어떠할까?

—(完)—

朝鮮米의移出…異例的의大不振
中旬만十一萬餘石激減

十二月中旬中의 朝鮮米輸移出高는 三十二萬一千五百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一萬八千八百十四石의 減少를示하얏다

▲米輸移出(單位石)

	今年	前年
十二月中旬	三二一、五一四	四四〇、三二八
累計	一、九六九、九六八	一、九九二、三二九

▲米輸移入

	今年	前年
十二月中旬	八、三三六	七、五三六
累計	一〇、六三四	[illegible]

▲粟輸移入

	今年	前年
十二月中旬	三一、六九六	一九、六六〇
累計	一〇三、〇五一	[illegible]

如斯히 朝鮮米移出은 例年에보지못한 不振狀況을 現出하고잇는데 이 原因으로서는

一、農村景氣의 好轉과 貯藏政策奏效로 産地의 正租出廻가 抑制되어온것

二、玄米市勢에 比하야 正租의 割高로 精米業者는 不採算에 陷하야 精玄米의 出廻가 遲延을 보고잇는것

三、日本內地市勢에 比하야 朝鮮內市勢가 割高를 唱하야 移出引이 不採算인것

等의 諸事情을 擧할수잇는바 特히 그 主要原因으로서는 産地의 先高期待에 依한 賣惜이다 이로因하야 十二月中移出과如한은 全然 閑散狀況을 繼續하야 近年의 異例的現象으로 되어잇다

日前事務所에서의 나타나지아니한 人氣는好感이엇다

『더음』過少가 重大한原因
七、八合入枡이四合
東北米가代位해

今年의 朝鮮米 日本內地移出은 各海港地가모다 아직 그리만흔量에 達지못하야 當初 念慮되고잇든 船腹의 不足도 最近은 오히려 船腹過剩이라는 意外現象을 示하야 例年 洪水와가티 流出하는 朝鮮米의 移出期에드믄現象이라고하는바 如此한 朝鮮米移出의 不振에는 다음과가티 今年特有의 日本內地米穀事情이 作用하고잇는것이라고 解釋된다

卽 朝鮮米는 從來 四斗에對하야 七、八合의 入枡을 하고잇섯스나 最近은 檢査規則의 最少限度四合밧게 더入枡치안코 反對로 日本內地에서는 東北米와 如한것은 今年부터는 六、七合의 入枡을하야 對抗하야 結局朝鮮米보다 日本內地米便이 得策인것

一、今年의 朝鮮米에는 胴割米가 相當히 만코 反對로 東北米와 如한것은 豫想外로 品質이 良好한것等의 事情에 依하야 東京、大阪의 兩市場에는 朝鮮米의 出廻前에 日本內地米가 出廻하야 朝鮮米의 移入餘地를 全然 閉鎖하얏는데 右事情中 朝鮮米의 入枡減少에 對한 日本內地米入枡의 增加는 日本內地農村의 朝鮮米에對한 認識이 기퍼진것을 示한다 그反面에 朝鮮米로서는 相當히 重要視할問題라고한다

正租保險增加

朝鮮火災의 正租保險契約은 十二月에 入하야 激增하야 十八日現在 契約件數六千三百八十三件 契約高千八百九十二萬七千圓에 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件數에잇서서 二千百七十件 契約高에잇서서 四百三十八萬三千圓의 增加를 示하얏다

慶南産組聯
近日認可決定

慶南의 産業組合聯合會는 慶南의 金組加入이 進涉지안허 停頓狀態에잇섯스나 이도 近近解決을 보게될터임으로 머지안허 正式으로 認可하야 中央統制의 機能을 發揮할 豫定으로 産組의 缺陷이라하는 連絡統制에 新機軸을 開할 豫定이다

日本貿易大膨脹
五十一億七千萬圓豫想
貿易開始以來新記錄

【東京電話電通】今旬貿易은 前旬에 比하야 輸出入모다 增加하얏는바 輸出增加八百八十六萬圓에 比하야 輸入一千三百二十七萬圓의 增加를 招來하야 貿易尻는 一千四百五十萬圓의 入超로되엿다 主要商品中 輸出에잇서서는 綿布의 二百萬圓增加가 눈에띄일뿐으로 그他는不變 輸入에잇서서는 棉花三百四十萬圓 羊毛五百萬圓 豆類百萬圓 原重油百萬圓이 各히 增加하얏다 輸入最盛期에 向하는今日 今後當分間은 今旬程度의 數字를 繼續하리라고보이는바 玆에 注目할만한것은 今旬까지의 日本貿易輸出入合計가 五十億一千四百萬圓에 達한것으로 昨年同期에 [illegible] 出入合計 一億五千六百萬圓)이 잇다고보면 今年의 總貿易額은 五十一億七千萬圓으로되어 貿易開始以來의 最高記錄인 大正十四年의 五十一億一千二百萬圓을 凌駕하게될터이다 同時에 貿易尻는 三千萬圓前後의 入超로 되어 大正七年의 貿易尻가 僅少하나마 出超를 示한以來의 好記錄으로 日本貿易의 顯著한改善을示한다

豪毛買付新記錄

【東京電話聯合】今年度豪毛買付는 十九日시드니와 멜보른兩市 [illegible]

金組聯合會
資金潤澤
餘裕金二千萬圓

金融組合聯合會의 預金은 十月中旬資金需要期로 殖銀으로부터 오히려 四五百萬圓의 借入金을 하얏는데 其後 資金回收期에 入하야 預金은 漸增하고 十一月中에는 貯蓄預金의 獎勵로 十一月中의 預金은 九十萬四千六百三十五口 受入金額二千百二十四萬七百七十六圓에 達하야 結局 二十日現在의 金融組合聯合會의 餘裕金은 預金一千五百二十萬圓으로 二十日受入한 米穀證券四百四十萬圓을 合하면 二千萬圓을 突破하게되엇다 그러고 이手許餘裕資金은 今後다시 增加할 豫定이다

크리스마스前撒을 最終으로서 日本의買付總量은 終하얏는데 日本의買付總量은 三十八萬五千俵로 未曾有의記錄을 示하얏다

日銀米券賣却完了

【東京電話聯合】日本銀行에서는 二十日預金部에 對하야 來年期近物米券一億一千五百萬圓의 賣却을 了하얏다 그리고 預金部는 買却인 右手取金으로 同日發行의 『丙號』四分利國庫債券(滿洲英貨債支拂의 內國債買替分)三千九百餘萬圓을 引受하고 殘額約七千六百萬圓은 各種年末運用資金에 充當할터이다

七十五萬石
買上斷行理由

【東京電話電通】別項과 如히 農林省에서는 七十五萬石의 代替米의 買上을 決定하야 二十日發表하얏는데 이는 最近의 米價의 動向과 過般의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決定한 新公定價格의 最高米價와의 關係로 敢行한것으로 이 結果 新年度米賣却高는 百七十萬石으로 殘高는 九十五萬石程度로 되게되엇스나 이 買上의 實施與否는 今後의 米價如何에달려 米價가 最高價格을 上廻할 念慮가 生하면 第二回의 買上은 實施할수업게될터인바 新年에 入하야 米價가 現在와가튼 狀態를 繼續하야 昂騰하지안흐면 當然 農林省의 第二回 買出動을보리라고한다 또 今回의 七十五萬石의 買上成績은 來二十八日에 判明할터인바 그 結果 第二回買上에 當然 影響을 及하리라고 觀測되어 成績이 不良하다 農林省이 調節上에 必要한 限度까지 新米를 買上할수업는 境遇에는 此亦 當然 來年初에 米價의 模樣을 보아 第二回의 買上을 斷行하게 될것이다

市場別無好感

【東京電話聯合】農林省에서는 別項과 가티 米穀統制法에 基하야 七十萬石의 買入을 發表하얏는데 市場은 이미 買入을 豫想하고잇서 數日來의 米價는 이를 織入하야 米價에 與하는 影響은 二十一 [illegible]

銀塊의頹勢로
國際會議開催說

【華盛頓廿日發聯合】世界銀市勢는 依然落調가不止하야 銀塊의 頹勢는 日復日 顯著하야지고 잇서 이에 對應하기爲하야 國際的銀會議를 開催할것이라는 論議가 一部에 擡頭하야 財務省方面에 勸說하고잇는듯하다 또 財務省顧問오리판트氏와 如한도 如斯한 會議는 相當히 效果가 잇슬터이라는뜻으로 首腦部에 進言한 模樣인데 財務省의 意向으로는 銀使用國인 極東諸國의 情勢가 現在와如히 混沌한 狀態에잇는때 이러한 會議를開한다할지라도 何等貢獻하는바가업스리라는 見地에서 一向 마음이 움직이지안는 模樣이다

銀崩落不熄
倫敦現物廿片四分一
昨年九月以來新低價

【倫敦二十日發聯合】連日崩落의 一途를 것고잇는 倫敦銀塊市場은 今日도 先物市勢가 서지안헛스나 現物市勢는 二十片四分의三으로 昨十九日보다 十六分의 七片가량 續落하야 昨年九月以來의 新低價에 落하얏다 一方 米國買物의 入%를 引取하얏合에 不過하다

世界銀市場
依然變調

【紐育二十日發聯合】世界銀市場의 變調는 今日에이르러도 아직 何等改善의 兆가업시 紐育의 헨디하-마商會는 公表市勢를 五十仙四分三으로 前日보다 二仙低로 決定發表하얏다 이는 昨年十月以來의 低價이다

「리라」對英爲替
廿日立會開始

【倫敦二十日發電通】倫敦爲替市場에서 리라市勢는 平價切下後 數週間에 亘하야 立會停止로 되어잇든바 二十日에 至하야 오래간만에 一磅에 對하야 六十一리라十六分의三으로 平價切下리라의 對英爲替立會가 開始되엇다

北朝鮮冷害救濟
追加豫算에計上

兩北年의 冷害發生에 繼續하야 今年度도 咸南高地帶에 廣汎한 燕麥、粟의 被害를 보앗슴은 旣報한바 이로 高地帶四郡四萬九千戶十三萬七千人은 食料를 給與할 必要가잇서서 벌서부터 咸南道에서는 이 救濟案을 講究하고잇든바 大體 이지음 成案을어더 總督府의 承認을 어덧다 이는 總額七十五萬四千圓으로 救濟土木工事를 施行(砂防과 道路)하야 窮民救與를 할計畫인데 豫備金支出은 限度額에 達하얏슴으로 追加豫算에 計上할 豫定이다

京城勞賃昂騰 朝銀調査

十一月中의 京城勞賃平均指數는 一五〇포인트○四九를 示하야 前月에 比하면 一포인트(三)의 昂騰이고 前年同期에 比하야도 一포인트○三의 昂騰이다 昂騰의 主要한것은 木工、土工、煉瓦職、石工、表具師人夫와 低落한것은 木挽、指物、桶職、펜키職、疊刷職、井戶職等이다

加奈陀報復關稅
明年初撤廢決定

【東京電話聯合】日加貿易改善에 關하야서는 兩國政府의 外交交涉이 圓滿進捗되엇슴으로 二十六日大藏省에서 關稅調査委員會를 開하고 今年七月二十日以降 通商擁護法發動에 依하야 小麥其他加奈陀商品에 附加하는中인 從價五割의 所謂報復關稅를 全面的으로 撤廢키로決定하얏는데 그 實施期日은 明年一月一日이리라고

經濟界消息

○金剛山電氣第三發電所七月頃完成=金剛山電氣第三發電所는 今夏七月 着工하야 其後順調로운 工程을것고잇는바 完成은 豫定대로 來夏七月로될 模樣인데 同發電所는 二千五百키로電力으로 이利用은 自家用에 供하기로 決定하얏다

明年初市勢豫想懸賞(米)募集

初立會(一月四日)

朝取期米 三月限發會價(前場寄價)
朝新株 朝取短期前場寄價
東新株 同上
(以上豫想을左記項目으로募集)

賞品
一等 十圓 三名
二等 五圓 六名
三等 朝鮮日報一個月購讀券 十二名

適中者多數인때는抽籤으로 定하고 만약適中者가업는때는 最近價로서順次로定함
▲終了=明年一月二日本社着에限함
▲發表=明年一月八日
▲注意=住所姓名을明記하야 『朝鮮日報經濟部』로 보내고用紙는葉書로一人一張一題에限함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商況(廿一日)
株式 無風狀態 同調

同一圈內徊徊 動意依然殆無

聯盟의 伊에和議工作은 失敗에歸햇스나 조치럼戰時氣分이 再然할것이아니오 內閣審議會의增稅問題擡頭、政治季節을 압둔 것等으로 보아 積極的買氣를 보이기어려운 反面 買方頓踏에는 最後五分間的의 掉尾一振 新春高期待가 依然解消되지안는만큼 떠러지지도 안허 市勢는 大納會가 닥처오나 動意가 殆無이오 同一圈內徊徊이엇다

前場保合 今前場도 亦是新味업시 同一圈內徊徊이엇스니 卽昨後引에比하야 東新卅錢高인 百七十二圓九十錢 大新四十錢低인 九十七圓四十錢 日産不變인 七十一圓四十錢 朝取七十二圓四十錢 鐘新百五十六圓五十錢、日産新卅錢(配當落)六十六圓六十錢에 各大引

後場休會 後場은 例休인데 東京前引은 大阪短期氣配도 東新 [illegible] 不勢이엇다

鐘新配當落=今前場부터 當地鐘新은 配當落實買인데 今期配當二割五分据置인 卅五圓錢五厘로 當地前寄百六十圓卅錢에比하야 四圓卅錢의下韓이엇스나 前引百五十六圓五十錢은 阪止百五十九圓卅錢보다 二圓八十錢下韓로 順當이엇다

日産의安定化
減配悲觀不當

[illegible] 危險을分散하고 好不況에 그리 敏感치안코 一定의 配當率에 調節되어 投資家가 安心하고 投資할수잇서야할 經濟的으로推奬할일인바 이意味에잇서 日産이 減配하고 償却을 만이한것은 조흔일이다 從來의日産은 投機의 對照物이되엇섯스나 日産을 그렇게본것은 本質的으로 잘못이다 日産의所在는 어듸까지던지 投資의 對照物이 되어야할 性質의것으로 減配를 하야 內容을 充實히하고 投機分子를 淸落한것은 잘되얏든일이다 現在一割配當은 더減해지지안흘것이니 投資的으로본 日産은安定化하엿다 하겟다

春高냐春低냐
强弱雙方緊張

春高냐春低냐 强弱雙方의緊張이 자못볼만한데 東京三期取組合計는 二百十八萬株로 本年中의 最高記錄이라한다 春高人氣의 根據는 貿易好調 低金利及各社業績으로보아 一般高期待이나 弱氣는 數個月後에 取組膨脹을 하고 買過反動되뒤 必然이라하야 對時코잇다。

期米 漸進步調 上向

前場强保 昨後場阪地三十錢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十五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三十錢인 昨止同樣의 報를據하고 二十八圓九十六錢인 一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二節二十錢으로 十八錢에 止場할을任하야 九圓〇三錢까지 跳返하엿다가 〇一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上進 後場은 二十九圓丁에 一丁低로 始場後前場上進하야 十二錢에 就落로 止場하다

出廻又復減退
結氷의關係?

當地正米의 新米出廻는 正租의 强制檢査로 例年보다 激減되엇슴은 更言할餘地도 업스나 그러나 稀薄한가운데에도 꾸준하게나오든 米穀이 昨今에入하야 依然減退되는 光景이다 그原因을深知하면 中農以下로서 高價를期待하든 實物은거의 一巡出廻하얏고 [illegible]

市場六感

株 百七十三圓臺로 올二고는 百七十一圓臺로 賣却되고 다시 一、三圓間 揉合만 繼續 ▲위로가면 買方이 아래로가면 賣方이 處分하라하니 別無變動▲東京兜町生活 三十年에 今年末가티 地場이 枯渇된해는 처음이라고▲內閣審議會에서는 增稅問題를 떠든다고 明年에는 斷行할지도 몰라 벌서부터 買氣를 阻碍식히나고▲萬人見解一致된 新春이 反對로 春低나 아닐지▲ 밋친 소리 갓지만 市勢를 누가 斷言하랴?

米 言必稱買上買上하더니 結局買上은 年內에 實施되는군 ▲그러나 米價를 調節하기爲한 三百二十餘萬石의 季節的買上이 아니고 旣히 百七十萬石을 拂下한 그代身의 百七十萬石의 買替임에 不過▲그런데 政府는 百七十萬石을 一時에 全部買上한다면 米價의暴騰을 招致할가하야 七十五萬石買上밧게 아니한다▲그럼으로 各地共히 二十丁內外의 昂騰에 止할뿐으로 다시 保合範圍에서 揉合하고잇다▲勿論昨今의 事情으로보아서는 此邊에서의 睡眠狀態를 免치못할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結局은 昂騰하고야 말모양 ▲그 條件으로 말하면 첫재는 日本內地米作이 二個年繼續의凶作이라 할수잇슬것이다 ▲그러고 政府의 買上은 季節的買上을 意味하는 三百二十萬石과 今回買上한 남어지의 九十五萬石이 잇다▲季節的은 그만둔다 할지라도 買替는 完了하고야말듯 果如何?

米棉綿上高

【紐育二十日發電通】米國國勢局은 十二月十三日 調査의 新棉繰上高를 九百七十五萬八千俵로 發表하엿다

九百七十餘萬俵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朝來五分利債는 依然買人氣로 五錢方高이나 外貨는警戒人氣로 小崩商狀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五、二〇	
一回四分利	九八、六〇	
二回四分利	九八、六〇	
佛貨四分利	一八六、九五	

實物前場取引

取引高 一六〇枚
▲日滿아루미 三、〇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櫻田機械 [illegible] △東朝鮮 [illegible]

大取委托證金引下

【大阪電話】大阪株式取引所에서는 二十三日부터 如左히 委托證據金引下를 決定하엿다
▲帝人(長短共)二〇、〇〇 ▲同新(長期)八、〇〇 ▲레온(長短共)一〇、〇〇 ▲産業(長短共)一〇、〇〇

今日財界(廿一日)

◆米(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 上 [illegible]
一斤價 下 [illegible]

◆市中金融價
一匁買 [illegible]
十圓 [illegible]

◆株(單位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大阪新株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高丁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買上發表에도 市勢엔無大響

後場上進 後場은 二十九圓丁에一丁低로 始場後前場上進하야 十二錢에 就落으로 止場하다

[illegible] 政府米買替인 百七十萬石拂下한 代身의 新米百七十萬石買上은 結局實現되는 모양으로 爲先七十五萬石만을 來二十六日에 保證金受付二十七日에 申請受付 二十八日에 買上을 決定한다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中限 賣方 買方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田中、眞乗、橫東京側 地場
▲買方=朝鮮側 地場目前側 木村自己

各地正米

京城小强 正租의 頑强으로 依然實物이 不足한 期米의 强調를 移하야 氣配五錢小强인 丸仁三等 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二

木浦保合 期米는 堅調이나 日本內地不合으로 取引이 圓滑하지못하고 市況保合인 丸木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群山强含 買入發表를 與한 特殊品에對하야 日本內地期米側의 買氣를보이어 地場의 賣方은 悲觀되어 市勢大槪强含이오 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

大邱續伸 年內買入 實施發表等三云고 穀物商의 市勢마침 人氣强硬해 推移이오 現期引進 [illegible] 未脫하나 氣配十錢高 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八錢

仁川小堅 期米高、買上發表로 引締人氣이나마 積極買踏態度로 産地의實情態度固持이오 氣配五錢小强인 丸仁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釜山同調 市場實物 七千叺 [illegible] 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金銀高價買入
金銀賣買合資會社
代表者 大盛守德
電話本局 一三八〇番
京城南大門通一丁九五(黃金町四街)

株式 期米
朝取取引員
營業案內進呈
柳來恒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九番地
電話本局 (二)六〇一 (二)九七 (二)三六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長 五二六 七七三 七二八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取期米(廿一日)
[illegible]

◆朝取短期(廿一日)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海外經濟◆(二十日)
[illegible]

◆朝鮮銀行勢◆
[illegible]

◆日本銀行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카코期麥◆
[illegible]

◆鰊油冲價◆
[illegible]

◆鰊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大阪絲系◆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